

다문화 이해 교육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한 수업 사례

김 갑 성*

I. 들어가며

십여 년 전 일본어를 배우던 중 어느 정도 듣기에 자신이 생기자 본격적으로 공부하려고 집에 위성 파라볼로 안테나를 설치하고 일본 방송을 보기 시작했다. 주로 뉴스만 보다가 어느날 우연히 드라마 ‘맥가이버’를 보게 되었다. 그 때 우리나라에선 ‘전 국민의 맥가이버화’란 말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대단한 프로그램이어서 나도 참 좋아했다.

‘어머! 맥가이버!’하고 눈 반짝 뜨고 쳐다보는데 잘 생긴 맥가이버가 이상한 목소리로 곤니 짜와, 아나따가~...*&*&*&*.....’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 집 텔레비전에서 맥가이버는 언제나 약간 낮은 톤으로 코맹맹하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데... 아니 맥가이버가 일본말을 하다니!!! 그 때의 당혹감은.....

‘익숙’에 젖어있었던 내 의식은 아마 맥가이버가 영어를 했어도 순간 용납이 안되었을 것 같았다.

이것이 나의 최초의 문화 충격이었으며 정말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에는 말도 못했다.

어릴 적부터 나는 모범생이어서 나의 생각과 판단은 항상 옳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터라 더욱 참담했다.

그 후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고국이 그리워 밤하늘을 보며 ‘엄마도 같은 초생달을 보시겠지... 하고 쳐다보니 그믐달이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럴 수가...’ 계속 음력 달력을 찾아보며 관찰해보아도 달 모양이 계속해서 거꾸로다.

삭망 → 그믐달 → 하현달 → 보름달 → 상현달 → 초생달 → 삭망 →

먼저 일이 자신의 교만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것에 일조를 하였다면, 남반구에서의 생활은 내가 이때까지 배워온 모든 지식에 대해 뒤집어 생각 할 수 있는 기초를 놓아 주었다.

귀국 후 좁아지는 세계에서 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리라 싶어 나의 다양했던 경험을 산발적으로 수업 시간에 그 때 그때 전달 형식으로 하고 있다가 재량활동 시간에 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국제이해교육’이 있음을 알고 정식으로 시간을 내어 개인의 문화충격을 교육이란 틀 안에 녹여 교수학습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II. 학급 분석(지역사회 분석)

* 경기 부천 오정초등학교 교사

부천 중3동에 위치한 옥산초교는 정부의 소규모 학교 정책에 따라 지어진 미래형, 도시형 학교여서 한 학급당 제한 인원 35명으로 두 학급이며, 넓은 교실과, 교실보다 넓은 복도에서 자유롭고 따뜻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대체로 활발하고 밝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모님들의 생활 환경은 넉넉지 못한 편이 대다수여서 해외여행을 하거나 외국인을 직접 만나 본 경험은 거의 없어서 외국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아주 낮았다.

Ⅲ. 준비 과정

그동안의 타문화 바라보기는 내가 배워 온 교육대로 서양문화는 우리보다 앞섰다고 무조건 부러워하고 따라하려고 애를 쓰거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아시아 오지의 특별한 모습, 특히 가난한 모습 등을 비디오로 접하며 동정심을 갖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다.

이 점에 대해 어느 문화든지 다른 문화와 '서로 다름'이 있을 뿐이며 어느 것도 비교해서 우등하거나 열등한 문화는 없다는 점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평등한 시선으로 우리 문화를 아끼며 동시에 여러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데 유의하였다.

수업의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수업 진행 도중 한밤중인 아르헨티나 교민과 국제전화로 현지의 상황을 아동과 바로 통화하게 하여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IV. 수업 과정

·대상 : 옥산초등학교 고학년

·실시 시기 : 2003년 4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수업 환경 :

* 전시물로 아동들의 흥미를 사전 흥미를 고조시킴

* 전시물에는 아동들의 흥미 수준에 맞는 설명문을 붙이고 언제든지 만지고 볼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였음

어린이 세계지도	지구의	달 모형	나무 배(칠레)	동 전	춧 대
투미(페루)	가방(브라질)	악기(페루)	마떼 잔	타피스트리 (우로스 섬)	연필꽃이 (우루구아이)
반지(볼리비아)	목걸이 (파라구아이)	장신구(페루)	원석 (아르헨티나)	식탁보 (아르헨티나)	관초 (아르헨티나)

1) 교수 학습 과정

(1) 위치

- 1) 세계지도를 보고 남미 각국의 위치를 알게 한 후 백지도에 다시 그려보며 각국의 위치를 알게 한다.
- 2) 남반구에 위치해 있으므로 달의 차고 이지러지는 순서가 북반구와 반대임을 알게 한다. 큰 종이로 반달을 만든 후 가운데 놓게 하고 두 아동이 마주보는 상태로 서게 한 후 달의 모양이 서로 반대임을 이해하게 한다.
- 3) 같은 이유로 북반구의 계절이 겨울일 때 남반구의 계절은 여름이어서 서로 반대이며 북반구에서는 집을 지을 때 남향을 선호하지만 남반구에서는 북향을 선호하게 됨을 이해하게 한다.
- 4) 지구의로 우리나라와는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어서 12시간의 시차가 나므로 밤낮이 반대임을 알게 한다.
- 5) 아르헨티나 현지 교민과 직접 전화로 통화하면서 지금 그 곳의 계절과 시간을 물어본다.
 계절--> 한국은 봄인데 아르헨티나는 가을이라고 하며
 시간--> 한국은 오전 11시인데 아르헨티나는 밤 11시임

(2) 우리나라와의 거리 및 면적 비교

- 1) 어린이 지도에서 편에 실을 묶은 후 한국에 고정시키고 컴퍼스처럼 사용하여 가장 먼 곳을 찾아보게 한다.
- 2) 종이로 우리나라 지도를 오린 후 몇 번 가야 그 곳에 갈 수 있는지 세어 본다.
- 3) 역시 종이로 우리나라 지도크기만큼 자른 후 아르헨티나의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대강 몇 배나 큰 지 알게 한다.

(3) 다양한 기후대

- 1) 브라질이 월드컵 최다우승국인데 이처럼 남미 사람들이 축구를 잘 하는 까닭은 천연 잔디가 깔린 넓은 곳에서 맘껏 공을 갖고 놀 수 있기 때문이다(넓은 초원지대여서 잔디가 아주 잘 자람).
- 2) 남극 가까이 파타고니아에서 지방에서는
 - 등산 후 빙산을 깨어 천연 얼음을 먹을 수 있음
 - 남극 신사 펭귄의 분고향인 발데스 반도에서 백만 마리 이상이 모여 살고 있음
 - 띠에라 델 푸에고 지방에는 어디를 가나 세상 마지막(도시, 열차, 우 체국, 상점, 거리 등)의 간판이 있음
- 3) 아마존 강 유역은 열대 우림 기후로서 전 세계에 산소를 공급하는 곳
- 4)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는 비가 오지 않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은 지붕이 없이 사방 벽만 있으며 페루의 나스카 유적 근처에는 노천에 미이라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도 상하지 않음

(4) 언어 -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 큰 대륙에 두 가지 언어만 있는 이유는 스페인(브라질 제외 전 대륙)과 포르투갈의 (브라질)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임.
- 서로 의사 소통이 쉬워 여행하기 편리하고 국가 간 협력도 쉬움
- 1) 스페인어 배우기 - 곱셈 구구표
 - dos por uno dos(도스 뽀르 우노 도스)
 - dos por dos quatro(도스 뽀르 도스 꾸아르또)
 - dos por tres seis(도스 뽀르 트레스 세이스)
 - dos por quatro ocho(도스 뽀르 꾸아르토 오초)
 - dos por cinco dies(도스 뽀르 싱꼬 디에스)
- 2) 과라니어 - 과라구아이는 독립 후 원주민의 언어인 과라니어를 공식 사용하며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며 살아감
- 3) 케추아어, 아이마라어는 페루인들이 잉카의 후예임을 자랑하며 쓰는 언어로 아직 일부 지방에서는 쓰이고 있음

(5) 역사

- 1) 전 대륙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었음
 -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나라 이름을 ‘은’을 뜻하는 스페인어인 ‘플라타’ 대신 라틴어인 ‘아르헨티나’를 선택함
 - 전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 이주해 왔고 그 후 토착민과 함께 살면서 인종이 섞임
- 2)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계 사람들도 있음
- 3) 아르헨티나는 국가 초기부터 원주민이 살 수 없도록 했으므로 혼혈인이 나 흑인이 거의 없음

(6) 종교

- 카톨릭교 : 인구의 90% 이상이 카톨릭교이며 특히 아르헨티나의 대통령과 부통령은 카톨릭교도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무 조항이 있어서 카를로스 메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원 종교가 이슬람교였는데 개종을 하여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었음
- 토착신앙 : 일부 원주민의 토착 신앙도 있는데 페루 쿠스코의 집들에는 지붕에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와 토착신앙에서 숭배하는 닭이 같이 있음

(7) 음식

- 1) 주식 - 밀과 옥수수가 많으며 특히 감자는 유럽으로 전파돼 유럽인들이 흉년이 들어 기아에서 헤맬 때 대단한 도움을 주었으며 이후 북미와 아시아로도 전파됨
- 2) ‘쇼클로 폰 게소’는 삶은 옥수수와 치즈를 곁들여 먹는 것으로 안데스 산간지방에서 특히 많이 먹음,
- 3) 육류 - 드넓은 초원에서 방목하는 소들이 많아서 육류를 많이 먹음

(8) 인종

- 백인종 : 유럽에서 이주해 옴
- 토착민 : 몽골계 토착민 - 적은 수가 안데스 고원지대에서 생활함
- 혼혈인 : 메스티조 등 백인과 토착민과 혼혈인
- 황인종은 이민자들이고 흑인종은 대부분이 사회의 저소득층 부분을 형성하고 있음

(9) 축제

- 1) 브라질 삼바 축제 - 세계인의 축제
- 2) 잉카 축제 - 페루에서 행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이며 이 때 제물의 심장을 꺼낼 때 쓰는 성스러운 칼을 투미라고 한다.
- 3) 그 외 각 나라에서 크고 작은 축제가 수없이 많으며 특히 남 여 한쌍이 같이 추는 아르헨티나의 민속 춤인 탱고가 유명하다.

(10) 가우초 되어 보기

- 아르헨티나의 가우초(목동)들이 입는 관초를 만들어 입어 본다
- 1) 준비물 : 직사각형 보자기 두개, 실, 바늘, 진한 갈색 도화지, 가위, 풀
 - 2) 순서
 - 가. 보자기 두 장을 겹친 다음 위쪽 가운데 중앙 30센티미터 정도를 남기고 양쪽에서 바느질해서 깎는다.
 - 나. 오른쪽과 왼쪽도 위에서부터 30센티미터 정도 남기고 아래서 바느질 해서 붙인다.
 - 다. 위쪽의 트인 부분으로 목을 넣고 양쪽의 트인 부분으로 팔을 빼 내어 입는다.
 - 라. 종이를 오려서 모자를 만들어 풀로 붙인다.
 - 마. 머리에 종이 모자를 쓰고 관초를 입으면 가우초 의상이 완성된다.

(11) 여러 가지 독특한 풍습

- 1) 밤에 하는 결혼식

낮에는 더우니까 시원한 밤에 결혼식을 성당에서 올리고 밤새도록 신랑, 신부와 함께 잔치를 벌인다.
- 2) 시에스타

한낮에는 너무 더우므로 12시에서 3시까지는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고 일반 상점들도 문을 닫는다(도시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 3) 칠로에 섬의 이사하기

칠레의 칠로에 섬에서는 이사할 때 집 밑에다가 둥근 통나무를 깔고 작은 집은 소가 깔고 큰 집은 트랙터 등으로 끌어서 집을 통째로 옮긴다.
- 4) 마떼와 아사도

육류를 많이 먹는 식생활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빨대로 빨아 먹는 마떼 차를 먹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친한 사이에서는 같은 잔을 돌려가면서 먹는 것이 특이하다.
또 고기(생선 포함)를 구울 때 소금을 뿌려서 간을 하고 숯불에 구워 먹는 음식을 아사도라고 한다.

5) 티티카카 호수의 우로스 섬

호수에 지천으로 자라는 토토라 라는 갈대를 잘라 만든 인공 섬으로 크고 작은 수백 개의 섬이 물 위에 떠 있다. 아래쪽에 있는 갈대가 썩 으면 새 갈대를 잘라 얹으면 된다. 큰 섬에는 학교, 박물관, 가정집, 가축 우리 등이 있으며 역시 갈대로 만든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며 생활하고 타피스트리를 만들어 관광객에게 팔기도 하는데 주민들은 아이마라어를 쓰고 평생 섬을 떠나지 않고 산다.

섬에 상륙하여 걸으면 땅이 푹신푹신하다.

6) 엘 끈돌 빠사 : ‘독수리는 날아간다 라는 뜻인데 독수리는 페루인들 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천상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 슬픈 노래를 부르며 스페인에 식민 지배를 받았던 비극을 달래고 있다.

5. 수업의 결과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를 계기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커져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업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게 되었는데.

첫째 일반 교과에서 접하기 어려운 내용을 알게 되어 학생들이 많은 흥미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시청각 자료 및 실물 자료를 활용하였더니 학생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았다.

둘째 스페인어 배우기에선 일반적인 인사말보다 곱셈구구를 통한 숫자 배우기를 했더니 먼 저편 다른 나라 학생들도 같은 구구셈표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아직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미 친밀감이 형성되고 있어서 아주 고무적이었다.

세째 그 후 인터넷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학생들로 하여금 추가 조사하여, 발표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 참여 수업으로 이끌 수 있었다.

6. 개선점

타문화 이해는 서로 상대방이 있음으로써 이해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있다.

여러 가지 국제 이해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상대방의 문화를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추었다고 하자. 그러면 상대방은 당연히 우리의 문화를 알고 싶어할 거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문화를 알려줘야 할 터인데 이 점이 많이 취약하다.

다른 문화를 아는데 급급해서 기본인 우리 문화를 알고 배워서 이를 알리려는 노력이 없다면 이는 문화의 종속을 의미할 따름이며 서로 원하는 지속적인 교류는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타문화를 이해하는 노력과 아울러 소홀했던 우리 문화를 먼저 알고 배워서 남에게 알릴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제이해반’ 운영과 ‘CCAP’를 통한 국제이해교육 실천사례

김 현 주*

국제이해교육의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국제이해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몇몇 학교에서 특별활동과 재량활동형식으로 관심 있는 교사들이 실시하고 있거나 사회·영어·도덕 교과등에서 부분적으로 국제이해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아직 학교에서는 체계적인 국제이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에 본인은 특별활동반 ‘국제이해반’ 운영과 UNESCO가 주관하는 CCAP(Cross- Cultural Awareness Programme :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활동을 통하여 지식위주의 전달학습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이 중심이 되는 체험활동 위주의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하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본인은 ‘국제이해반’운영과 CCAP 운영을 통해

첫째, 21C의 다문화시대(多文化時代)에 필수적인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의 정신을 함양하여 문화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 학생들이 지구촌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 태도를 함양하여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셋째, 교과서와 서적위주의 지식전달 방식의 국제이해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위주의 능동적, 적극적 체험활동과 협동학습을 위주로 하는 열린 방식의 새로운 국제이해교육의 모델을 제시하여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 실행 중점 I

<표 1> 실행중점 I

실행중점 I	‘국제이해반’ 운영을 통해 국제이해교육을 구안·적용하여 세계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함양한다.
실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국제이해반 학생 모집 및 구성 -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선택 -문화간 이해, 인권, 평화, 세계화, 환경 -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 - ‘국제이해반’ 활동을 통한 활동 교육 내용을 동신중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다른 학생들이 함께 공유

1. 프로그램 내용요소 및 교육활동내용

가. 문화간 이해

<표 2> 문화간 이해 교육 내용

	내 용 요 소	활 동 내 용
문 화 간 이 해	세계의 다양한 문화	세계의 몸짓언어
	문화 상대주의	문화상대성의 중요성(개고기 논란)
	타문화체험	인도문화 학습 및 인도차 '짜이' 체험하기
	CCAP 수업	터키 문화체험
	외국인이 본 한국문화 vs 한국인이 본 외국문화	외국인이 바라 본 한국문화와 한국인이 본 외국문화에 관해 토론하기
	각 국의 문화 소개	모둠별로 각국의 문화 조사 및 소개
	세계 각국 국기 페인팅	세계 각국의 국기 페인팅

1) 인도차 ‘짜이’ 만들기

모둠별로 인도에 관해 학습하고 인도의 차인 '짜이'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표 3> ‘짜이’ 만드는 법

재 료	만드는 방법	
물, 짜이가루, 생강, 우유, 설탕, 체, 냄비, 가스렌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당량의 물과 짜이가루, 생강을 넣고 팔팔 끓인다. 2. 갈색의 짜이 색깔이 우러나오면 우유를 넣고 3, 4분 정도 더 끓인다. 3. 우유가 끓으면 설탕을 넣는다. 4. 끓은 짜이를 고운체로 걸러 마신다. 	

[그림 1] 인도차 ‘짜이’ 만들기

2) 외국인이 본 한국문화 토론

외국인이 한국문화를 바라볼때와 반대로 한국인이 외국의 문화를 바라보았을 문화에 대한 차이를 모둠별로 토론하였다.

<표 4> 잘못된 우리 문화 학생 토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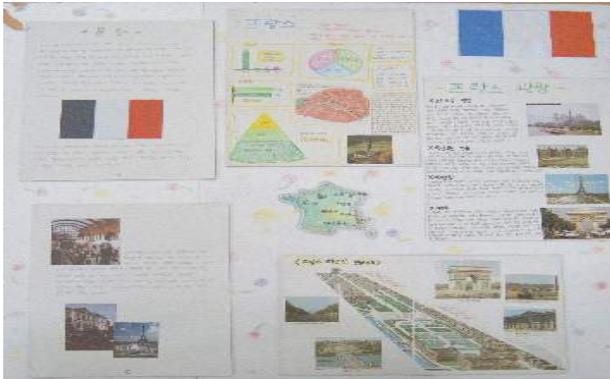
이것만은 고치자!!! 잘못된 우리 문화	
조원 : 변봄이, 박성미, 박진주, 신봄이	조원 : 김지은, 이민아, 서호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줄을 서지 않는다. 2. 항상 무표정에 미소를 짓지 않는다. 3.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다. 4.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 5. 항상 급하게 움직인다. 6. 땅에다 쓰레기를 버린다. 7. 뇌물을 좋아한다. 8. 장애인 시설이 부실하다. 9. 문화재 보존이 허술하다. 10.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사를 잘 안 한다. 2.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다. 3. 공공시설을 더럽게 쓴다. 4. 자기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5. 사기를 잘 친다. 6. 길거리에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 7. 길거리에서 담배핀다. 8. 공중도덕을 잘 지키지 않는다. 9. 물건안사면 짜려본다. 10. 자연환경을 훼손시킨다.

3) 세계 각국 국기 페인팅

세계 각국은 자신들 고유의 국기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국기를 알아보고 친구들과 함께 국기 Body Painting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국기를 익힐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4) 모둠별 세계 각국 조사

학생들은 모둠별로 자신들이 원하는 국가를 선택한 후 그 나라의 문화, 자연환경, 관광유산, 지리 등을 책과 인터넷등을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을 다른 모둠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럼으로써 단순히 교사로부터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지식과 문화를 직접 찾음으로써 세계 각국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림 3] 프랑스에 대한 조사



[그림 2] 세계 각국의 국기 페인팅 모습



[그림 4] 스위스와 영국에 대한 조사

나. 인권

<표 5> 인권 교육 내용

	내 용 요 소	활 동 내 용
인 권	장애인 인권 체험	시각장애인 체험 및 느낀점 쓰기
	노동자들의 인권문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 알아보고 토론하기
	인간복제	인간복제와 인권문제(인간복제의 장·단점)
	국제난민	국제난민에 관한 비디오 시청 및 엽서 쓰기

1) 장애인 인권 체험

학생들은 2인 1조가 되어 1명은 눈을 가리고 시각장애인의 역할을, 1명을 그 학생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학교를 걸어서 한바퀴 돌아보는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였다. 체험후 자신이 느낀점을 다른 학생들에게 발표하고 그 느낌을 적어보았다.

<장애인 인권 체험 후기>

2학년 6반 김지은

1. 어떤 종류의 체험을 했나요?

장애유형 : 시각 장애인

사용기구 : 안대

장애체험방법 : 안대로 눈을 가리고,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

2. 어떤 점이 정상인과 달랐습니까?

눈이 불편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 매우 불편하였다.

3. 어떤 점이 불편했습니까?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 정말로 불편하였다.

4.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도와 주었으면 했습니까?

손을 잡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옆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까지 가야 끝이 있는지, 계단은 몇 칸 남았는지 등 친구가 말해주었으면 좋겠다.

5.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제도 : 각 회사마다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기

장애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벌금을 내도록 하기

장애인에게 불편한 시설을 고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만들기

시설 : 문턱 없애기, 장애인을 위한 편리한 교통시설 만들기,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넓은 길 만들기, 장애인이 학교를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장애인 시설 설치하기

봉사활동 : 무작정 도와주기보다는 장애인이 할 수 없는 일과 혼자하기 힘든 일을 도와주며 힘든 장애인 집을 방문하여 도와주어야 겠다.

인식 :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보통사람들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겠다.

2) 외국인 노동자의 삶에 대해 알아보기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3D 업종에 일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는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국제이해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알아보고 느낀점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후 조별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나의 생각

2학년 6반 황설하

처음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이 이야기를 보니 정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내가 외국인 노동자라면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을 많이 원망할 것 같다.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무시하는 한국사람들은 태도를 바꾸어야만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 한국사람을 대하듯이 무시하지 않는 한국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단순히 불쌍하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눈길을 주고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아야 겠다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도록 노력해야지.....

3) 인간복제

요즘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인간복제에 대한 모둠별 자료 수집과 함께 인간복제가 가져올 수 있는 장점과 단점 및 그로 인한 인권문제를 모둠별로 토론하였다.



<학생토론자료>

인간복제의 장점 <기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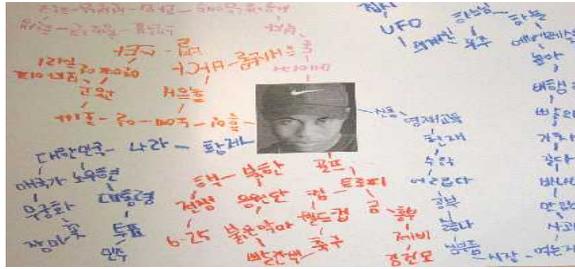
1. 인간 복제는 위대한 재능, 천재성, 인격등 귀감이 될 만한 품성을 지닌 개인을 복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2. 인간 복제 및 인간 복제 연구는 인가의 발생과정과 같은 과학지식상의 중요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3. 인간 복제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겪고 있는 불임이라는 짐을 덜어줄 새로운 수단이 될 것이다.
4. 인간복제는 죽은 아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누군가를 복제하도록 할 수 있다.
5. 인간복제는 부부 중 한쪽이 심각한 유전병을 앓고 있을 때, 그 병을 자손에게 물려줄 염려 없이 번식할 수 있게 해 준다.
6. 현 인간이 갖고 있는 각종 난치병 및 불치병을 고칠 수 있게 해 준다. 등

인간복제의 단점 <오! 해피데이조>

1. 생명 경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 신장이식 등을 핑계로 인간을 복제한 다음에 이식만 하고 죽일 수 있다. 인간 존엄성과 생명의 중요성은 더 이상 없다.
2.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를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간은 자신만의 개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인간을 복제한다면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사라진다.
3. 새로운 차별과 사회 계급이 생긴다. - 복제기술을 통해 부모가 되려는 이들은 가급적 우수한 유전형질을 가진 아기를 낳으려 할 것이다.
4. 인간복제는 신에 대한 모독이다. -신만이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는 기독교의 믿음에 의하면 조작에 의한 인간복제는 신에 대한 모독이자 도전이다.

4) 굶주림에 고통받는 사람들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에서 제공하는 ‘난민이 된 아이들’ 비디오 시청을 한 후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엽서를 씌으로써 난민의 실상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림 8] 세계화를 주제로 한 마인드 맵

라. 평화

<표 7> 평화 교육 내용

	내 용 요 소	활 동 내 용
평 화	이라크 전쟁	이라크 전쟁의 실상 및 참혹함
	이라크 전쟁	반전 포스터 만들기
	남북통일	통일 O/X 퀴즈, 남북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인종과 종교갈등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인종·종교갈등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활동	세계평화를 위한 UN의 역할

1) 이라크 전쟁 반전포스터 만들기

이라크 전쟁에 대해 모둠별로 토론을 실시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조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포스터를 만들게 함으로써 이라크 전쟁의 의미와 이라크인의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 9] 이라크 전쟁 반전 포스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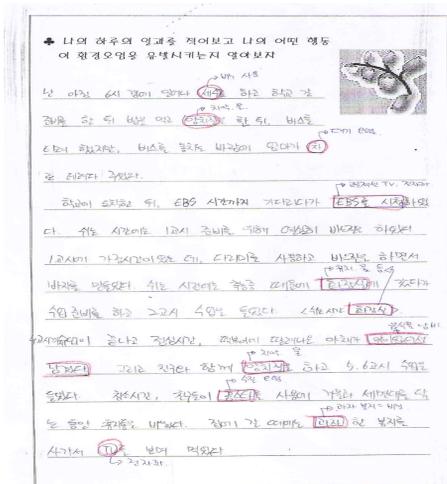
[그림 10] 반전 포스터 2

마.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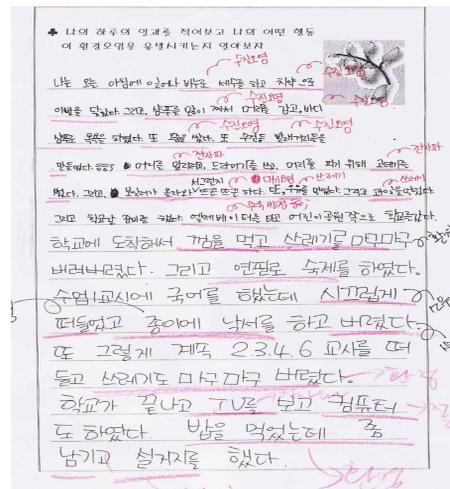
<표 8> 환경 교육 내용

	내 용 요 소	활 동 내 용
환 경	황사현상	황사현상의 원인과 현상
	패스트푸드의 비밀	패스트푸드가 가져오는 환경파괴 TV공익광고 만들기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	NGO의 역할/환경 포스터 만들기
	나의 하루와 환경오염	나의 일상생활을 통한 환경 파괴 실태

1) 나의 일상생활을 통한 환경 파괴 실태 알아보기



[그림 11] 나의 하루와 환경 파괴 1



[그림 12] 나의 하루와 환경 파괴 2

한 해 동안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국제이해반에서 실시하였고 본교에서는 10월 동선한 마음 축전을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 기간동안 국제이해반에서 실시한 내용들을 전시하여 다른 학생들이 국제이해교육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 해 동안의 CCAP 활동 사진과 CCAP 활동 체험기, 학생들이 국제이해반에서 실시한 여러 활동 결과물로서, 이라크 반전 포스터, 조별로 각 나라에 대한 조사 결과물과 자료집 등 여러 활동 사진들을 전시하였다.

II. 실행 중점 II의 실행

<표 9> 실행중점 II

실행중점 II	CCAP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의 정신을 함양한다.
실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수업설계 및 준비 - 외국문화 체험 전 체험국가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 1학년 6개반 학생과 국제이해반 학생들에게 CCAP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생위주의 체험활동 실시 - 문화체험 보고서 작성 - 문화체험 실시후 CEV, KIV와 함께 수업평가 및 협의회 개최 - KUCES 홈페이지에 수업 내용 보고 및 동신중학교 홈페이지 dongsin.ms.kr 을 통한 문화체험 수업 내용을 전체 학생, 학부모, 교사와 공유

1. 문화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수업설계 및 준비 : 문화체험을 실시하기 위해 홈페이지 <http://kuces.unesco.or.kr/> 상에서 학교계획 및 학생 관심도를 고려하여 수업을 신청하고 수업이 확정되면 자원봉사자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수업협의를 실시한다.
2. 외국문화 체험 전 체험국가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 문화체험전 학생들에게 UNESCO와 CCAP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주고, 학생들이 문화체험 국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궁금한 점을 적게 한다.
3. 1학년 6개반 학생과 국제이해반 학생들에게 CCAP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습자 위주의 여러 가지 체험활동 실시한다(표 10 2003 CCAP 활동내용 참고).
4. 문화체험 보고서 작성 : 문화체험을 실시한 후 학생들에게 수업시간동안 배운점 및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
5. 문화체험 실시후 CEV, KIV와 담당교사와 함께 수업에 대한 평가회 개최 : 수업을 마치고 CEV, KIV와 함께 수업 준비상황과 수업내용, 학생활동, 학생들의 반응 및 체험 문화에 대해 수업 평가회를 실시한다.



[그림 13] CCAP 하와이 문화수업



[그림 14] CCAP 인도네시아 문화수업

<표 10> CCAP 활동내용

체험국가	날 짜	2003년 4월 19일 (3-4교시 : 90분)
인도 문화체험	CEV/KIV	Kiran Israni / 김 소 향
	수업참여학급	동신중 1-5 남녀 30명
	수업내용	인도의 전통 춤, 의상, 의복, 지리, 환경, 종교등과 인도 음식 '난' 만들어보기
터키 문화체험	날짜	2003년 5월 16일 (5-6교시 : 각 45분씩)
	CEV/KIV	Abudullh Durak / 권 정 희
	수업참여학급	동신중 1-6 반 29명, 국제이해반 20명
	수업내용	터자연환경, 화폐, 언어, 한국과 터키 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점, 터키차 '차이' 만들기
멕시코 문화체험	날 짜	2003년 6월 4일 (5-6교시 : 90분)
	CEV/KIV	Alfredo Gozale / 김 희 준
	수업참여학급	동신중 1-4 남녀 29명
	수업내용	한국과 멕시코 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점, 지리, 환경, 언어, 멕시코 음식 '케사리아'만들기

Ⅲ. 제 언

첫째, 사실 현재 유네스코에서 실시하고 있는 CCAP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학교는 많으나 외국인자원봉사자나 통역자원봉사자의 부족으로 대다수의 학교는 CCAP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학교는 그 어려움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지방에서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원봉사자와 한국인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CCAP수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역 교육청에 CCAP활동 운영 부서를 만들어 지역 자체에서 CCAP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둘째, 교육부 차원의 ‘국제이해교육’ 시범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체계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구안되어져야 한다. 국가는 국제이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교재를 제작하고 수업 시수를 확보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국제이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제이해교육에 있어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 못지 않게 자기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기에 국제이해교육에 자랑스런 우리문화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어져야 한다. 자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될 때 진정한 국제이해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01). “더불어 사는 세상 배우기”.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2). CCAP Participant's Handbook.
-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03).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국제이해교육교육교원연수」.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2001). “지구촌시대의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초중등학생 교육용 국제이해교육프로그램연구’.
- 경기도 국제이해교육 교과교육연구회(2002). 국제이해교육 교수-학습 과정안,경기도교육청.

종교간 이질감 해소를 위한 국제 이해 교육 수업 연구

1.

2. 신 유 섭*

1. 대주제 : 문화간 이해(이질감 해소 방안)

3.

2. 소주제 : 종교간 이해(노래를 이용한 종교간 이질감 해소 방안)

4.

3. 학습 목표 :

가. 가. 각 종교의 개요, 역사를 이해한다.

나. 나. 각 종교에서 강조하는 덕목들을 학습한다.

다. 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노래를 통해, 우리가 중시하고, 당연히 하는 덕목들(효, 우정, 이웃간의 사랑, 자유, 평등 등)을 확인한다.

라. 라. 이러한 덕목들이 각 종교에서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음을 안다.

마. 마. 다른 종교간에도 가르침의 일치를 안다면, 특정 종교간 싸움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 수 있다.

바.

4. 학급 분석

사.

아. 가. 대상 : 중학교 2학년 학생

자. 나. 지역 : 서울 강남 지역

차. 다. 삶의 수준

1) (1)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음

2) (2) 방과후 2~3개의 학원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들

3) (3) 한 학급에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 않은 학생이 한 두명인 상황

4)

5. 준비 상황

카.

타. 가. 노래의 준비

1) (1) 벅스뮤직(www.bugsmusic.co.kr)을 통한 노래 가사 수집

2) (2) 학생들에게 관련 노래를 수집하는 과제 제시(효, 우정, 이웃 사랑 등의 주제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노래를 탐색케 함)

가) (가) 방학 때, 학생들에게 주제를 주고 관련 노래를 탐색케 함

나) (나) 탐색 후, 교사의 이메일로 보내도록 지도

3) (3) 평소 교사의 관심

파. 나. 기타의 준비

1) (1) 교사가 기타 연주를 할 수 있는 관계로 교실에서 부르는 노래는 테이프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불러주는 방법을 택했음.

5.

6. 수업 모형

가. 가. 1차시 : 각 종교의 개요, 역사적 배경, 주요 덕목 소개

1) (1) 컴퓨터 교실을 활용한 수업

가) (가) 모둠 구성 :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로 나눈다.

나) (나) 인터넷을 이용한 각 종교별 강조 덕목을 찾기.(과제 : 관련 노래 준비하기)

나. 나. 2차시 : 전 시간에 찾은 덕목과 관련된 노래 선정하기, 모둠별 노래 연습, 모둠별 개사 하기

다. 다. 3차시 : 종교의 덕목과 노래 발표, 각 종교간 주요 덕목이 같음을 다시 한번 상기, 전 세계적 문제 짚고 넘어가기(종교간 분쟁)

라.

7. 결과 및 기대 효과

마. 가. 종교간 이질감 해소에 도움을 준다.

바. 나.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

사. 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종교의 가치가 같음을 이해할 수 있다.

아. 라. 대중 가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자. 마. 온 가족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제공한다.

차. 바. 대중 매체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카.

8. 한계

6.

가. 가. 사랑 위주의 노래가 너무 많음 - 그러나,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닌, 인류애를 표현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면 무궁무진한 소재가 될 수 있음

나. 나. 노래 가사 위주의 수업이 되어, 멜로디 등을 무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그러나, 느낌이 좋은 노래를 이용, 개사하는 방법을 쓰면 무리가 없을 듯함.

다. 다. 주제가 종교간 이질감 해소가 아닌, 인권, 우정, 효 등 다른 것으로 해도 수업 진행이 가능함.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는 생각이 끝까지 머리를 떠나지 않았음.

라. 라. 보내온 노래를 정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음.

마.

9. 반성

바.

사. 가. 교사의 각 종교간 이해 부족으로 인한 깊이있는 수업 내용이 되지 못했던 점

아. 나. 노래의 자의적 해석

자. 다. 원래 목적이 아닌, 노래가 목적인 수업이 되었음

차. 라. 노래와 관련된 덕목에 대한 강조가 더 필요했다는 생각을 했음.

카.

10. 수업 내용(덕목 내용) -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찾은 덕목들

타. 가. 이슬람교

- 1) (1) 생명과 재산의 보호
- 2) (2) 명예의 보호
- 3) (3) 사생활의 존엄과 보호
- 4) (4)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호
- 5) (5) 폭정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
- 6) (6) 표현의 자유
- 7) (7) 결사의 자유
- 8) (8) 양심과 확신의 자유
- 9) (9) 종교적 사상의 보호
- 10) (10) 임의의 투옥으로부터의 보호
- 11) (11) 기본 생존권에 대한 권리
- 12) (12) 법 앞에 평등
- 13) (13) 범을 초월할 수 없는 통치자
- 14) (14) 국사에 참여할 권리
- 15)

파. 나. 불교

- 1) (1)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 2) (2) 도둑질을 하지 말라
- 3) (3) 샳된 음행을 하지 말라
- 4) (4) 거짓말을 하지 말라
- 5) (5) 술을 먹지 말라
- 6) (6) 화합(싸우지 말라)
- 7)

하. 다. 기독교

- 1) (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 2) (2) 이웃에 대한 봉사
- 3) (3) 겸손의 생활
- 4) (4) 미신적 습성으로부터의 자유
- 5) (5)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 6) (6) 살인하지 말라.
- 7) (7) 간음하지 말라.
- 8) (8) 도둑질하지 말라.
- 9) (9)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증언을 하지 말라.
- 10) (10) 네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 11)

거. 라. 유교

- 1) (1) 어울려 사는 인간
- 2) (2) 예 중시
- 3) (3) 수신제가치국평천하
- 4) (4) 수기 치인
- 5) (5) 성(성실)
- 6) (6) 경(정제, 엄숙, 순수, 수렴)
- 7) (7) 오류 : 호혜의 원칙
- 8)

11. 각 종교의 가르침의 공통점

너.

더. 가. 화합(부모에 대한 공경, 웃 어른 공경, 평화 등)

러. 나. 인권

머. 다. 평등

버. 라. 사랑(인, 자비, 박애, 우정)

서. 마. 자유

어.

12. 노래 부르기

7.

가. 가. 인간 존중

- 1) (1)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2) 강물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 알게되지 음 알게되지 /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 부둥켜 안은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으음-음-- / 지독한 외로움에 찢찢때본 사람은 / 알게되지 음 알게되지 /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 어느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 질푸른 숲이되고 산이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 바로 우리 우린 참 사랑

나.

다. 나. 우정, 사랑

1) (1) 젊은 연인들

2)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 걸어가는 길 / 저기 멀리서 우리의 낙원이 / 손짓하며 우리를 부르네 / 길은 험하고 비바람 거세도 / 서로를 위하며 / 눈보라 속에도 손목을 꼭 잡고 / 따스한 온기를 나누리 / 이 세상 모든 것 내게서 멀어져가도 / 언제까지나 너만은 내게 남으리

라. 다. 화합, 통일, 우정, 인권

1) (1) 작은 연못

2)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 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 날 연못 속의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 놈 살이 썩어들어가 물도 같이 썩어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 것도 살지 않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 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마.

바. 라. 우정, 화합

1) (1)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2)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사랑하는 친구 모여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친구의 손 맞잡고 가로 질러 들판 산이라면 여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여기여차 건너주자 해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 주고 가다 못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 됨을 위하여

유네스코 협동학교 현장학습 프로그램 ‘2004 국제인권이해 공연전’*

신 수 진**

최근 ‘유네스코 협동학교 현장학습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유네스코위원회에서는 전국에서 5개교(팀)를 선정해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약 30년째 유네스코 협동학교(ASPnet :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로 활동하고 있는 본교는 올해로 4년째 이 공모전에 당선되어 2001년부터 매년 가을에 ‘국제이해공연전’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세계를 이해하자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2003년까지는 국제이해교육과 관련된 세 분야, 즉 국제적 이슈, 다양한 문화 학습, 인권, 민주주의, 환경문제, 세계화 등에서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한 후, 학급별로 자유롭게 공연을 했다. 하지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공연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했지만, 단순한 퍼레이드, 가장행렬, 춤 등의 공연이 많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국제이해공연전이 갖는 뚜렷한 메시지가 부족했다는 데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2004년에는 대 주제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human rights)’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여성, 아동, 노인, 전쟁, 소수민족, 소수인종, 장애인, 성적 소수자, 종교, 외국인 노동자, 북한주민 등의 인권 문제를 제시한 후, 그 중에서 학급별로 주제를 선택해서 공연 내용을 정하도록 했다.

I. 공연 개요

1. 프로그램명 : 서울사대부설여중 국제인권이해 공연전
2. 일시 : 2004년 10월 23일 토요일 09:00~12:00
3. 장소 : 본교 뒤뜰 잔디밭
4. 주체 : 3학년 8개 학급
5. 목적 및 기대효과 : 학급별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서로 협력해 내용을 만들고 공연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한 의식을 키우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의 정신과 함께 세계인의 평화와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르고 아울러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른다.

II. 공연 준비 과정

1. 진행 일정

- 10/1(금) : 교직원회의시 공연전 실시 계획안 배부
3학년 담임 회의 - 담당교사의 공연전 계획 설명
- 10/9(토) : 학급회의를 통한 각반 공연 진행 위원회 구성 및 학급회의를 통한 각반 공연 주제 및 내용 협의
- 10/11(월) : 각반 공연 진행 위원회와 담당교사의 회의
- 10/13(수) : 각반의 주제 및 공연 내용 확정 - 담당교사에 보고
- 10/18(월) : 진행 상황 1차 점검회의 - 시나리오를 담당교사에게 제출
- 10/20(수) : 진행 상황 2차 점검회의
- 10/22(금) : 최종 점검 및 리허설

2. 각반 공연진행위원회 구성

각 학급에서는 학급회의를 통해 공연진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인권이해 공연전 행사 계획을 수립하며, 전체적인 진행은 공연진행위원회의 철저한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했다. 공연진행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장 (2명) : 공연내용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최종보고서 제작을 포함해 학급별 공연진행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총 책임자
- ② 의상 및 소품 담당(2명) : 공연에 필요한 의상과 소품 목록을 결정, 제작계획 수립 및 제작 담당
- ③ 음악 담당 (1명) : 공연에 필요한 적절한 음악을 선택해서 음악 및 소리 파일을 구하며, 출연 배우들의 목소리 연기를 미리 컴퓨터 파일에 녹음하는 작업을 담당
- ④ 회계 (1명) : 주어진 예산 내에서 구매 분야를 정하고, 현명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며, 영수증을 수합하고 지출목록을 작성해 담당교사에 최종 제출

3. 공연의 내용과 형식

각 학급 공연 진행위원회와 담당교사와의 회의를 통해, 공연의 내용은 국제 인권 문제와 관련된 것이면서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학급별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공연의 형식면에서는 연극, 가장행렬, 코스프레, 춤, 음악, 퍼포먼스 등의 장르를 총 동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한된 시간(8분 내외)에 주제를 가장 효과적이고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4. 공연 예산 및 구입 물품의 재활용

담당교사는 일괄적으로 각 학급에 10만원 씩 지원금을 배부하면서, 준비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5만원 내외 범위에서 더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학급 회계 담당은 철저한 구매 계획과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으며, 예산을 간식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공연 종료 후, 신청한 예산으로 마련된 의상 및 소도구는 각 학급 담당 학생이 사용 후 학교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물품들은 교내 유네스코실에 보관 중이며 차후 공연 및 특별활동, 기타 관련수업 등에 널리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 공연 준비 자료 정리

최종 공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준비과정, 수집한 자료, 공연내용 설명, 공연 사진, 공연 후 소감 등)을 각반 공연진행위원장이 공연 종료 후 10일 안에, 학교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 파워포인트와 한글의 형식으로 등재하도록 했으며, 우수작은 개인별로 시상함을 공지했다.

Ⅲ. 심사 및 시상 계획

1. 평가 항목과 기준 : 심사위원의 총점을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평가항목	주제표현력	의상 및 소품 준비도	공연 수행력	질서 의식 및 제한 시간 준수	총점
배점	40점	20점	20점	20점	100점

2. 심사 위원

교감선생님, 특별활동 부장 선생님, 진로상담 부장 선생님, 윤종배 선생님, 국제이해교육 담당 교사

3. 보고서 제작 우수 시상

공연 10일 후(11월 2일)까지 각반 공연진행위원장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심사하여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IV. 공연 당일



10월 23일 토요일 1, 2학년 전교생은 간편한 체육복 복장으로 뒤뜰 잔디밭에 모여 앉아 3학년들의 공연을 관람했다. 이날은 특히 체육대회, 먹거리장터, 알뜰매장, 특별활동발표회로 이어지는 1주일간의 ‘한결마당’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이기도 했다. 목소리 연기 및 음향 효과가 모두 하나의 컴퓨터 파일에 녹음돼 있었기 때문에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고, 그만큼 학생들은 몸짓 연기에 충실할 수 있어서 공연을 더욱 흥미롭게 했다. 공연 직후 발표된 심사결과와 1, 2, 3위 학급의 공연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상	학 급	공연 주제	공연 제목
1위	3-6	못생긴 사람의 인권	“흑설 공주의 비애”
2위	3-7	북한 주민의 인권	“우리들도 사람이드래요~”
3위	3-1	장애인의 인권	“클론 강원래의 이야기 꾸미기”
극본상	3-2	인종차별	“It's different.”
음향효과상	3-8	아동 학대	“들리지 않는 외침”
소품상	3-4	인권 무시로 인한 가족의 갈등	“늘 푸른 집”
의상상	3-3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살아가기	“한국사람 무서워요!”
연출상	3-5	여성의 인권문제	“EMT” Change your Eyes Change your Manner Change your Thinking

3-6 “ 흑설 공주의 비애”

못 생긴 엄마, 오빠, 언니가 밖에서 얼굴 때문에 생긴 일을 막내딸이 얘기하면서 시작한다.

▶ 언니가 면접장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생긴 일

면접장에 예쁜 여자 둘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얘기 하며 면접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헛님은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냐며 의아해 한다. 면접장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외모가 예쁜 여자들에게는 질문도 하고 답도 열심히 들어 주는 반면 얼굴이 못 생긴 헛님은

대답만 하려고 해도 말을 잘라 버린다. 이에 충격을 받은 햇님이 ‘얼굴이 못 생겨서 미안해’라는 노래를 부르며 끝이 난다.

▶엄마가 막내딸 학부모회 갔다가 생긴 일

환경미화 때문에 학교 교실에 모인 몇몇의 어머니들 자신의 외모와 의상들을 자랑하고 선생님의 의상을 비꼬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 얘기에 끼어보려고 했던 달님이 엄마는 촌스럽고 못 생긴 외모 때문에 다른 엄마들이 끼워 주질 않는다. 그러다가 청소가 생각난 달님이 엄마는 어떻게 할거냐고 말을 걸어 봤지만 다들 대꾸조차 해주지 않는다. 화가 난 달님이 엄마는 소리를 치고 나가려고 한다. 그 때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나 대화를 하다가 열이 받아서 나가버린다. 그리고 막내딸 달님과 달님이 엄마가 노래를 부르며 끝이 난다.

▶오빠가 미팅장에서 생긴 일

멋있는 남자 둘과 그에 비해 외모가 조금 딸리는 별이 의자에 앉아 있다. 잠시 후 멋지고 예쁜 여자들이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미팅이 시작된다. 모두들 자기소개를 한 후 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별이의 외모를 가지고 흉을 보며 짜증을 내기 시작한다. 그 때 멋있는 킹카가 지나가고 그 사람이 남자들의 친구! 그래서 자연스럽게 별이를 빼고 킹카와 미팅을 하자는 대화가 오가고 별이가 화장실에서 돌아온 후 모두들 급한 일이 있다며 빠져나간다. 모두들 나간 후 별이가 무릎을 꿇어 앉으면서 ‘못 생기게 죄냐고!’ 라는 말을 하며 절규한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버블시스터즈의 ‘버블송’이라는 노래에 맞춰 모두 춤을 춘다.

3-7 “우리들도 사람이드래요~”

3학년 7반의 ‘우리들도 사람이드래요’는 북한 탈북자 문제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요즘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학교에 대한 적응이라고 하는데, 이 공연에서는 주인공인 탈북자 학생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언어의 의사소통의 문제로 또래들과 거리감을 느끼게 되면서 일어나는 갈등이 주소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학생들이 남한 학생들과 서로 잘 어울려 잘 지내야 한다는 염원을 담아 마지막에는 모두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3-1 “클론 강원래의 이야기 꾸미기”

우선 강원래와 구준엽의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갑작스런 교통사고의 현장과 강원래가 사고 직후 병원에서 겪었던 아픔, 좌절이 이어진다. 그 후 여자친구 김송의 도움으로 그리고 좌절을 이겨내는 강원래. 그리고 그를 향한 팬들의 지지도 그가 아픔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한 장애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강원래가 회복한 몸을 이끌고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공연은 막을 내린다.

V. 맺음말

2004년에는 본교의 학사 일정상 10월 중순에 중간고사를 비롯한 여러 학교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3학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공연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다. 하지만 각 학급별로 조직된 공연진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급 전체가 주체가 되어 서로 협력해 주제를 정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교내 재봉실에서 직접 의상을 만들고, 소품을 제작하는 등 방과 후에도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열심히 공연을 준비했다.

비교적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3학년 학생들이 좋은 공연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본교의 자기주도적 발표 수업의 결과이다. 특히 본교의 도덕, 사회 교과와 경우, 교사의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생들의 모듬 발표를 통한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모듬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연극, 노래가사바꾸기, 퍼포먼스 등에 익숙해져 있다. 도덕, 사회 교과는 이러한 발표의 형식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인권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학습 내용도 풍부하게 제공한다. 그 밖에도, 국제이해반, 연극반, 코스프레반등의 클럽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 교과재량활동 등이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3학년 학생들에게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의욕적으로 즐겁게 공연 준비에 참여할 수 있었고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었다.

2004년 국제인권이해공연전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3학년 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고, 나 또는 우리와 다른 것에 대한 관용의 정신, 그리고 힘없는 소수에 대한 배려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아울러 이 행사는 1, 2학년 학생들에게는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인권 교육의 장이기도 했다.

종족음악과 민속춤을 통한 국제이해교육방안과 자료제작

유 기 중*

I. 연구의 동기 및 목적

7차교육과정에서 국제이해교육은 재량활동의 한 분야로서 교육하도록 되어있고 음악교과에서도 각국의 민족음악을 가르침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전 세계의 민족음악을 민족음악과 그 나라의 역사, 지리적 환경, 국제적인 문제 등을 모듈별로 조사하여 알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민족음악과 민속춤, 그 나라의 역사 지리적 환경 등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 러시아, 독일의 대학 민족음악(Ethnomusicology) 홈페이지, 민족음악 세계협의회 홈페이지, 각 국가 홈페이지 중 문화원과 관련된 파트와 링크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실제 수업시간에 한반을 5개조로 나누어 여러 나라의 음악과 춤을 공부하고 그 나라에 내재하고 있는 국제적인 문제를 통해 국제이해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관련 이론 탐색

음악은 모든 문화에 공통적인 주요 구성요소이다. 여러 문화권의 민속무용곡을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은 문화권에 따른 음률, 가락, 정서, 의미, 성향 등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생음악이나 CD를 통해 대중음악, 클래식, 국악 등 여러 문화권에서 즐기는 다양한 음악장르를 접해 보게 한다. 한편 문화권마다 즐겨 연주하는 악기들은 다양한데 이들 악기들의 차이점을 조사해 본 후, 공통점도 찾아낸다면 훌륭한 국제이해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음악발전에 기여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를 소개하고, 그들의 작품을 감상하게 함으로써 국제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음악이란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공통언어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1. 국제이해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기반조성의 측면

1) 문제점

-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교장 교감의 지휘 관리의지가 약함
- 담당 부서·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
- 학교교육과정에서의 국제이해교육 계획 실천이 미흡함
- 국제이해교육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가 부족함

2) 개선방안

- 교장, 교감은 국제이해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반조성에 힘쓰고 종합적으로 지휘 관리한다.
- 인문사회교육부에 국제이해교육부를 두며, 인문사회부장은 국제이해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국제이해교육이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중요시되도록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 국제이해교육의 기본방향, 방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사연수를 실시한다
- 국제이해의 날을 설정 운영하며 외국의 친구에게 편지 쓰기 퀴즈놀이 민속놀이 경연 민속놀이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전개한다.

나. 교과지도의 측면

1) 문제점

- 국제이해교육이 사회과에 제한되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
- 사회도덕교과가 국제이해교육의 선도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국제이해교육의 수업자료가 부족하며 질적 수준이 미흡함

2) 해결방안

- 국제이해교육은 탈교과적 또는 범교과적인 교육활동으로서 전교과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회 도덕교과는 국제이해교육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선도역할을 해야 한다.
- 주입식 강의식 일변도의 수업방식을 지양하고 전통적인 방법과 새로운 방법을 적절히 조화하며 탐구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국제이해교육 수업활동을 전개한다.
- 멀티미디어 및 인터넷을 활용하는 수업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외국의 문화와 생활모습을 생생하게 이해하게 한다.

다. 재량활동의 측면

1) 문제점

- 재량활동의 국제이해교육을 담당할 부서조직이 없음
- 심화보충시간에 국제이해교육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음
- 환경 및 생활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택한 학교가 많음
- 범교과학습의 다양한 국제이해교육 활동이 미흡함

2) 개선방안

- 재량활동부를 설치하여 선택교과 심화보충 학습 창의적 재량활동 등을 심도 있게 연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심화 보충 학습으로 과학 사회, 도덕 등이 선택되는 경우 환경문제 인권문제 영어 의사소통능력 함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룸으로서 국제이해교육을 심화시킨다.
- 창의적 재량활동의 범교과학습을 통하여 국제이해교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흥미 있

는 학생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제 이해 경험의 폭을 넓힌다.

라. 특별활동의 측면

1) 문제점

- 특별활동에 있어 국제이해교육의 비중이 매우 낮음
- 클럽활동에 있어 국제이해교육 활동반이 거의 없음
- 외국인을 위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음

2) 개선방안

- 특별활동에서의 국제이해교육은 체험과 과정 중심의 인간적인 활동이라는 특별활동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운영함으로써 교과교육을 통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며 학생활동중심으로 실천해야한다
- 봉사활동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일에 관심을 갖게 하고 서로 돕는 호혜정신을 길러준다
- 계발활동에 있어서 국제이해교육은 우선 다양하게 활동반을 편성하는 일이 필요하며 체험중심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제이해교육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외부기관의 지원 측면

1) 문제점

-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함
- 국제이해교육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음
- 생생한 경험을 전수할 교사들의 국내외 현장체험기회가 부족함
- 학교간 국제자매결연을 통한 국제이해교육 활성화 노력이 부족함
- 국제이해교육 전문가와 현장 채널이 부족함

2) 개선방안

- 국제이해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를 강화한다. 각종 연수에 국제이해교육의 비중을 확대하며, 국제이해교육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연수를 실시해야한다
-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등은 학교현장의 국제이해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체제를 정비한다.
- 국제이해교육과 관련되는 교사들의 국내외 현장체험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한다
- 국제이해교육 연구학교 또는 시범학교를 통해 영역을 넓혀야한다
- 교육청에서는 국제이해교육 우수학교의 실천사례를 발간하여 현장에 보급함으로써 운영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종족음악(Ethnomusicology)의 성격

세계에는 진정 다양한 음악이 존재한다. 아마도 종족의 수만큼이나. 또 복잡하게 계층화된 사회에서는 그 수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에서는 세계음악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 관심은 세계사나 세계의 여러 언어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한 생존의 문제와 거울같이 나타나는 정보화의 세계에서 경쟁의 도구로서 국가간의 이해를 통한 인권문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인간은 음악을 통해서 산다. 다시 말해 인간은 음악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서양에서는 음악을 하는 인간을 이해하려고 전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하는 음악을 대상으로 연구해오고 있는 것이다. 서양의 학자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양한 모습을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폄하하는 일없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과 민족마다 각각의 개성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음악도 개성적이며 그 개성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실제로 음악은 언어와 같은 것이므로 소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만의 특유의 음악어법을 사용하며 양식미를 드러낸다. 그래서 누구든 한 종류의 음악을 이해하려면 그 어법을 이해하고 그 양식미를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한다. 그 음악을 다른 음악어법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상하다. 원시적이다” 등의 오판하기 쉽고, 어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양식미를 적절히 감상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음악이 보편적이라는 말을 흔히 한다. 서양 예술음악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으로 그러한 주장이 따른다. 그러나 음악은 보편적 현상이지만 한 양식의 음악이 보편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21세기에는 영어가 보편적인 언어가 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구촌의 각 나라가 자기네 언어를 완전히 버리고 영어를 사용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서양 예술음악이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질 수는 있어도, 서양 예술음악영역에 맞들여 자기네 음악의 맛을 다 잊어버리는 나라들은 21세기를 이끄는 나라가 될 수 없다. 21세기는 문화의 다양성의 시대라고 하지 않는가.

3. 음악교과 중 종족음악교육의 목표

제 7차 교육과정은 10년 간의 국민 공통기본교육 기간에 학생이 성취하여야 할 음악적 능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음악적 창의성 계발은 다양한 악곡과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제 6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특히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음악 개념의 이해와 음악성, 창의성 계발은 다양한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곡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가. 이해영역에서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의 형식, 리듬 가락 음색 등을 학습하도록 되어있고
- 나. 가창, 기악, 창작, 감상활동에서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부르고 연주하고 들을 수 있게 하고 있다.
- 다. 11, 12학년에서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되어있는 음악과 생활에서도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접하도록 되어있어서, 교수-학습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 7차교육과정의 재량활동의 영역

	영역	활동	활동 내용(예시)
재량활동	교과 재량활동	국민 공통 기본교과의 심화·보충 학습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
		선택 과목 학습	·선택 과목 학습
	창의적 재량활동	범교과 학습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u>국제 이해 교육</u> ,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등 ·학교, 지역,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범교과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 교육과정에 제시된 예시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활동이 가능함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주제 탐구 활동 ·자유 연구 ·소집단 공동 연구 ·프로젝트 학습 ·체험 학습 ·학교 행사 관련 활동 ·학교 특수 시책 구현 활동 ·특정 영역 학습 ·지역 행사 관련 활동 ·학교장, 교사, 학생이 만든 특별교육 프로그램 등 ·기타 자율적 교육활동

4. 교과재량활동과 국제이해교육

재량활동의 내용과 국제이해교육과의 관련에 있어서 먼저 언급해야 할 부분은 교과재량활동인 것이다. 물론 국제이해의 요소들은 재량활동 뿐 아니라 정규교과 내용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국제이해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교과재량활동은 제7차 교육과정 중 10개(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실과, 가정, 외국어) 기본교과 보충, 심화학습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이런 교과에 대해 교과서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부분을 보충, 심화하는 것이 한 줄기이고 또 한 줄기는 선택과목(한문, 컴퓨터, 환경, 제2외국어)을 학습하는 경우인 것이다. 먼저 기본교과 보충, 심화하는 교과재량활동에서 무엇을 보충하고 무엇을 심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제 1차적으로 각 교과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심화 보충시킬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각 교과 내에 가지고 있는 국제적 요소들이 정규교과시간에 소홀히 또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심화, 보충의 의미로 이들 요소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의 세계화 정보화의 기본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4개 영역(세계적 관점, 문화간 이해, 세계문제의 이해, 국제기구의 이해)의 걸쳐 제시된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은 음악교과의 어떤 지식을 좀 더 추가한다는 측면 뿐 아니라 학생스스로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면에서 실행해 볼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 생활음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기능 또는 언어만 학습할 것이 아니라 각 나라를 중심으로 한 사회 문화적 측면까지 학습할 수 있다면 훌륭한 국제이해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음악을 배우는 일차적 목적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 나라의 사회 문화적 배경까지 익혀야 제대로 문화를 이해하고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문화다양성과 문화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간 이해교육

국제이해교육의 문화간 이해의 측면은 두 가지 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째는 문화의 다양성이고 그 둘째는 문화의 정체성인 것이다. 국제이해교육에서는 평화스럽게 더불어 잘 사는 것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더불어 잘 살기 위해 국민간에 서로 잘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잘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잘 이해한다는 말인가? 바로 그 나라 국민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말일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개념이 다른 나라의 국민을 이해하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문화란 언어, 관념, 신앙, 관습, 규범, 제도, 기술, 예술, 의례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사회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지식, 신념, 행위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잠깐 보았듯이 우리 사회가 정보화 되어 가게 됨에 따라 우리 인류가 접할 수 있는 문화의 범위가 아주 넓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한 지역 또는 한 국가의 문화가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국가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그 속도가 거의 동시성(同時性)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성의 폭은 엄청나게 큰 것이다.

이런 현상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당혹과 충격을 안겨 주기도 하고 수용을 강요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용을 거부하게 만들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문화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헤어나며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생

각할 수 있는 것은 문화상대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상대주의란 어떤 하나의 문화가 갖고 있는 논리와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모든 문화현상들을 규정하지 않고 각 현상들의 형성과정과 배경 및 환경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현상을 이해하려는 방식인 것이다. 국제이해교육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그 사는 방식의 하나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분명히 상대방의 위치와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다원주의 문화사회에서의 삶의 지혜이기도 하고 문화간 이해를 추구하는 국제이해교육의 의도이자 방식이기도 한 것이다.

앞서 국제이해교육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그러기 위해 상대방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였다. 그런데 상대방이란 그야 말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또는 우리가 상대방이 되는 것이다. 상대방이 우리를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일 우리의 고유한 그 무엇이 없고 오직 또는 대부분이 외래(外來)의 것만 가지고 있다면 이는 상대방이 우리의 것을 이해할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문화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문화의 정체성은 상대방에게 우리를 보여줄 것, 건네 줄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임을 증명해 보이고 우리를 다른 상대방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우리만의 고유한 그 무엇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전통생활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으며 전통예술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정신적 세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문화에도 강약(強弱)이 있어서 강한 문화가 약한 문화에 전파되기는 아주 쉬운 것이며 그 반대는 어렵다는 것이다. 요즈음 우리의 경우는 서양의 문화가 동양의 문화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例)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보존하며 발전시키는 일은 더욱 더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만 세계 문화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문화 다양성에 기여할 수도 있으며 문화를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문화의 다양성 인정과 문화정체성 확립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간 이해교육으로서 국제이해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한 연유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다.

6. 음악교육과정 학습내용 분석

가.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중 민족음악영역의 내용체계 분석

구 분	고 등 학 교	
	10학년	
가창 기악 감상	가창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부른다
	기악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연주한다
	감상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는다
	음악과 생활 영역에서도 가창과 기악영역에서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악을 이해하고 애호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감상영역에서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분석하여 바른 감상태도를 길러 음악을 생활화한다. 라고 되어있다.	

7. 교과서 중 민족음악 내용

가. 중학교

국 가	종족음악 곡명	국 가	종족음악 곡명
독일	노래는 즐겁다	미국	Good night Ladies
스코트랜드	아름다운 나의 벗	이탈리아	산타루치아
이스라엘	안녕	에스파니아	로망스
오스트리아	산위에서	스위스	아름다운 베르네
보헤미아	푸른 목장	미국	할아버지의 시계
웨일즈	고향을 떠나	멕시코	아름다운 하늘
독일	봄바람	독일	잘있거라 내고향
인도네시아	내 어머니	독일	즐겁게 노래하자
뉴질랜드	연가	중국	모리화
인도네시아	라사 사양계	스위스	아름다운 엠멘탈
에스파니아	고향생각	미국	콜로라도의 달
러시아	불가강의 뱃노래	서양의 민요와 민속악기	고향을 떠나 매기의 추억 악기 등

나. 고등학교

국 가	종족음악 곡명	국 가	종족음악 곡명
중국	초원의 노래, 모리화	멕시코	라쿠카라차
인도네시아	붕가왕 솔로	티롤	엠멘타르 아름답다
이스라엘	하바 나길라	호주	월칭 마턴타
남아프리카	클릭송	프랑스	목장의 아가씨
에스파냐	금지된 장난	미국	흑인영가
포르투갈	쿠임브라	터키	우수쿠다라
러시아	호롱불, 스텐카·라진	독일	잘있거라 내고향
스위스	아름다운 베르네	스코트랜드	애니로리

8. 선행연구

연 도	연구주제	내 용	비고
1996	컴퓨터 CD-ROM을 이용한 한국 전통악기 재현 교수-학습자료	우리 나라의 전통악기에 대한 교수-학습자료로 전통음악시간의 자료	
1996	배우기 쉬운 단소 및 가야금 주법자료	6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전통음악의 국악기 주법자료	
1997	창의적 표현력 신장을 위한 음악과 교수-학습자료	6차 교육과정의 이해, 표현, 감상 영역 중 표현영역의 교수학습자료	
1997	악장별 분석을 통한 음악감상 학습자료	음악 감상 영역의 악장별 주제중심의 분석을 겸한 감상자료	
1997	음악감상 효과를 위한 듣기평가 자료(CAI) SET	음악과 감상학습검 평가자료	
1998	향토민요 발굴과 활용을 통한 전통 음악 지도자료	통속민요가 아닌 향토민요를 중심으로 지역이 정서와 문화를 다룬 자료	
1998	CD-ROM에 의한 기악 합주 교수-학습 지도자료	협동학습으로 적합한 합주에 있어서 효과적인 교수-학습자료	
1999	서양음악사 중심으로 한 음악감상 학습	6차 교육과정 검인정교과서의 감상 자료를 음악사조별, 장르별로 정리	
1999	주요관악기와 음악감상 지도를 위한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자료	교과대의 지도에서 관악기의 특성 및 음색을 구별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조사 분석해본 결과 서양음악이나 우리전통음악에 관한 자료는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세계 민속음악에 관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Ⅲ. 연구 과정

1. 연구기간 : 2004. 8. 1 - 2005. 7.

2. 연구 방법

7차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재량활동의 하나인 국제이해교육과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연주하고 감상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 가. 교과서에서 세계 종족음악과 국제이해교육의 분야를 추출하고
- 나. 18개반을 각반 5조로 나누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프리카지역, 아메리카 지역, 유럽 지역, 중동지역의 종족음악과 민속춤을 조사하여 1시간에 1조씩 5시간에 걸쳐 발표하고 자료들을 모아 국제이해교육자료로 제작한다.
- 다. 세계 종족음악을 나라별로 지리적 조건, 역사적 조건, 민속음악, 민속놀이, 민속춤 등을 소리파일이나 영상파일로 만들었고
- 라. 악보인 경우 노테이션(Magicscore2000s) 소프트웨어로 처리하여, 수업자료로 적 합한 크기의 파일로 만들며, 민속 음악의 악보와 연주사진은 PPT자료로 만들었으며
- 마. 음악교과의 특성상 미적인 아름다움과 부드러움, 그리고, 음악과의 조화를 살리면서 학생들의 시력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배경 및 화면색 선정 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으며,
- 바. 감상영역의 기본개념들의 내용을 최신 사운드모듈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실 음으로 제작함으로써 학습지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 사.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CD의 제작 보급으로 필요한 학습자 개개인의 개별 학습이 가능토록 하였고,
- 아. 민속놀이, 민속춤 등의 동영상을 통한 이해의 속도를 빠르게 했으며.
- 자.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홈페이지와 각 국의 대사관 문화원 홈페이지를 링크 시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3. 세계종족음악 관련 홈페이지

- h t t p : //www.joyclassic.com/kr/JoyClub/JoyClubView.asp?JoyClubIdx=MUSIC SAY&tbl=JC_09_MUSIC SAY&DI dx=85
- http : //dkftyd.hihome.com/ 민요의 설명이 잘되어있음
- http : //www.boomjjang.wo.to/김덕수에 대한 설명
- http : //www.classickorea.co.kr/clko_main0.htm 동영상 음악감상
- http : //www.modocom.com/ 음원
- http : //www.nanta.co.kr/home.htm 난타사이트
- http : //www.worldmusic.com/ 세계음악 중 민족음악
- http : //www.ualberta.ca/~slis/guides/music/mandj.htm 민족음악 사이트 모음
- http : //cnmat.cnmat.berkeley.edu/%7Eladzekpo/ 아프리카음악
- http : //echarry.web.wesleyan.edu/africother.html 아프리카 타악기배우기
- http : //www.indiana.edu/~aaamc/websites.html 아프리카음악 인터넷 사이트
- http : //www.research.umbc.edu/eol/cambodia/music_bg.htm 콜롬비아 음악
- http : //www.pacificnet.net/gamelan/gamelanmusic.html 인도네시아 음악

<http://www.fix.co.jp/kabuki/kabuki.html> 일본 가부키음악
<http://www.middlebury.edu/~lib/ethno.html> 민족음악 자원
<http://www.ceolas.org/ceolas.html> celtic countries(Ireland, Scotland, Wales, Brittany(in France), Galicia(in Spain)음악
<http://www.eyeneer.com/World/Instruments/index.html> 세계의 민속악기
<http://www.eyeneer.com/World/Af/Instruments/index.html> 아프리카 악기
<http://ntama.uni-mainz.de/~ama/> 아프리카음악에 대한 학습
<http://www.lib.washington.edu/music/world.html#africa> 아프리카음악
<http://www.lib.washington.edu/music/world.html#latin> 카리브해 라틴 아메리카
<http://www.lib.washington.edu/music/world.html#oceania> 호주 뉴질랜드음악
<http://www.eyeneer.com/World/Ea/Instruments/index.html> 동아시아 악기
<http://www.eyeneer.com/World/Ea/Instruments/index.html> 서아시아 악기
<http://www.medieval.org/music/world/india.html> 인도음악
<http://www.lmuza.lv/ethnomusicology/>라틴아메리카 민족음악학회 자료
<http://www.joyclassic.com/kr/JoyClub/musicsay/> ICT음악 자료
<http://www.worldmusic.com> 민족음악에 대한 설명
<http://www.culturelink.or.kr/database/db.htm> 아태지역 국가별 문화기구
http://aceiu.unesco.or.kr/aceiu_data/world.html 국제이해교육 자료

IV. 자료의 구성 및 사용 방법

1. 자료의 구성 내용

제 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 중·고등학교 과정(7,8,9,10,11,12학년)에 해당하는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 중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민족음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 지역의 음악과 민속놀이 민속춤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들이 그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도록 유네스코 홈페이지와 연결시켰고 그 나라의 음악의 특징들을 알 수 있도록 소리파일과 window media, real player를 통해 제시하였으며 그 나라의 악기를 연주 모습과 악보는 CD-rom으로 제작하고 소리는 컴퓨터를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주 자료 및 보조 자료 목록

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민족음악

국 가	주자료 내용(WAV 파일)
방글라데시	Sari Gaan(의식의 노래)
	Primer Gaam(사랑가)
	Biar Gaan(결혼의 노래)
	Ghum Parant Gan(자장가)
	Chara(리듬노래)
	Nadir dhare path(강가를 따라서)
	Jibon shurjer(불빛의 의미를 찾아서)
	O, biraler chana(my Kitten sings a songs a song)
중 국	Yan Nan Fei(기러기는 남쪽으로 날아가고)
	Qing Chun A Quing Chun(젊음, 오 젊음이여!)
	Mei Li De Cao Yuan Wo De Jia(나의 집 아름다운 초원이여)
	Mei Li De Xin Ling(A Beautiful Spirit)
	Mu ge(전원의 노래)
	Tulu fan de pu tao shu le(트르판에 포도는 익어가고)
	Nian qing de peng you lai xiang hui(젊은 친구여 함께 만나자)

국 가	주자료 내용(WAV 파일)
인 도	He Maru Vanaravana Ch he Rudoo Re Vaikunt Nahin Re Aoon (그는 바이쿤트로 안올것이다)
	Ghuhghat Ghuhghat Naina Nache(눈은 베일 뒤에서 춤을 추고)
	Deem Tanana, Deem Tanana, Deem Tanana
인도네시아	Potong Bebek (Duck Cutting), Nona Maris(Chaming Girl)
	Mande Mande
	Burung kakak Tue(카카투 새)
	Ampar-Ampar pissang
일 본	Chatsumi(차있을 따면서)
	Yocke no Uta(새벽의노래)
	Iihi Tabi dachi(좋은 날은 지나가고)
	Seto no Hanayome(세토신랑)
말레이시아	Gelang Si Paku Gelang
	Jong-Jong Inai
	Anak Ikan
	Dia Datang
	Wau Bulan
네 팔	Mata Lali Gunras Bhayechu(마음속에 꽃을 피우리라)
	Sabaile Bhanthe Layaiu Ful Bhai(모두 내가 꽃을 피우리라고 이야기한다)
	Mayalule Samiheki kaso(내마음 속에 사랑이)
뉴질랜드	I hope I never
	Asian Paradise
	Hine E Hine(Maori Lullaby)
	Hangin'on
파파 뉴기니아	Malu Baidam(바닷 상어)
	Mori Mori
	Emai Beni Lida mero(우리 악장님)
	Tilon Golga Me
	O Ngaiyo Ngiae

국 가	주자료 내용(WAV 파일)
필 리 핀	Telebong
	Tuksuhan(teasing)
	Isang Mundo, Isang Awit(하나의 지구 하나의 노래)
	Kalesa
	Nasaan Ka Irog(사랑아 어디로 가느냐)
싱 가 폴	Lovely orchid
	Friend, Do not sigh
	Make Courtesy our way of life
	Di-Tanjung katong
	Medly of songs
스리랑카	Doi Amma(오 나의 어머니)
	Egodaha Yanno(사공의 노래)
	Dasaniya Opakala(손톱을 잘 가꾼 예쁜 손)
	Kala Wewe(카라웨웨 저수지)
태 국	Nok Kamin(작은 노란새)
	Sao E-sarn Raw Ruk(북동쪽으로부터 온 소녀가 사랑을)
	Siang Thone run wong(run wong의 복소리)
	Siang Thien(촛불)
	Sai Fon(비는 내리고)
베 트 남	Tinh Ca(사랑의 노래)
	Thang Ba Nguyen(3월의 서부 고원에서)

나. 프리젠 테이션자료(CD-rom 2)

국가/춤곡	주자료 내용(PPT 및 동영상자료)
중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의 음악 ·역사적 배경 ·현대음악 ·영화음악 ·중국 종족음악 ·소수민족의 음악 ·중국의 환경오염과 우리나라의 황사, 황해의 오염 ·중국의 인권문제

국가/춤곡	주자료 내용(PPT 및 동영상자료)
티베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티베트의 지리적 환경 ·티베트의 역사적 환경 ·티베트 전통음악 ·티베트 탐방(동영상자료) ·티베트의 인권문제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음악의 역사 ·일본의 지리적 역사적 환경으로 본 음악의 역사 ·일본음악의 종류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문제 ·정신대 문제
인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의 역사 ·인도의 환경문제와 종교분쟁 ·인도의 음악의 지역적 구분 ·인도의 음악 및 춤
스 페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페인의 역사 ·스페인의 자연적 환경 ·스페인의 춤(동영상자료) ·스페인의 음악 ·투우의 역사적 배경
불가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리아의 역사 ·불가리아의 음악 ·불가리아의 자연적 환경 ·유럽의 종족음악 ·불가리아의 종교분쟁 및 경제적인 문제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스트리아의 춤과 음악 ·왈츠의 발생과정과 요한스트라우스(동영상자료)
케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프리카음악의 역동성 ·아프리카음악의 특징 ·케냐의 춤과 음악 ·기아와 환경파괴와 인권문제
나이지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이지리아 음악의 특징 ·나이지리아 환경문제와 기아문제
이 집 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집트의 환경 ·이집트 문명과 서양문명 ·스예즈 운하와 베르디의 아이다. ·어린이와 학대 및 여성인권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역사 ·지역적환경 ·아프로 아메리칸 음악과 니그로음악, 흑인영가 ·인디언의 음악 ·White America(AMINEM)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의 침공과 민주주의

국가/춤	주자료 내용(PPT 및 동영상자료)
아르헨티나	·삼바춤(동영상자료) ·하바네라 ·IMF와 아르헨티나의 경제문제 ·아르헨티나의 정치문제
브라질	·삼바춤 및 동영상 ·경제문제 ·하바네라와 남미의 춤 ·아마존강과 환경문제
러시아	·러시아의 음악과 춤 ·차이코프스키와 러시아 5인조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등 문인과 발레음악 ·러시아민요 ·체첸의 침공과 인권문제
북한	·북한의 음악이 중국과 러시아 음악에서 받은 영향 ·북한의 핵문제 및 국제적인 문제 ·인권문제

다. 세계 종족음악 학습자료(CD-rom 주자료)

지역	국가별 종족음악	탑재내용
아시아	중국 일본 티베트 인도	지역환경 지역의 문화 춤 음악
아프리카	케냐 나이지리아 이집트	지역의 역사 춤과 음악 자연환경
아메리카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지역의 역사와 지리적 환경 춤과 음악 아프로 아메리카음악
유럽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유럽 원주민의 음악과 춤 유럽의 역사와 사회적 환경 지역별 음악의 특성

4. 적용 영역

가. 단원명 : 세계의 종족음악(Ethnomusicology)

나. 단원의 목표

- (1) 세계의 종족음악의 발생과정을 안다.

- (2) 각 나라 종족음악의 특징과 선율을 이해할 수 있다.
 - (3) 민속춤과 종족음악의 연관관계를 안다.
 - (4) 종족음악과 민속춤을 통해서 국제이해교육을 하도록 한다
- 다. 단원의 지도계획

차시	지도내용	학습내용	국제문제	지도자료
1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종족음악과 춤 (세계의 축제)	·종족음악 ·민속 춤	·아프칸 사태 ·인도-파키스탄 분쟁 ·티베트 독립문제 (달라이라마) ·환경오염문제 (황사현상) ·미국의 이라크 침공문제	·CD-rom ·악보(TP) ·역사적·지리적배경 (unesco homepage)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대학과 종족음악협회의 홈페이지
2	동유럽지역의 민족음악과 춤	·국민악파	·스칸디나 반도 분쟁 ·체코슬로바키아의 인간청소 ·NATO문제	
3	서유럽지역의 민족음악과 춤	·베토벤 ·하이든 ·베버 ·슈만 등	·WTO, G8, 신자유주의문제 ·왈츠 ·가보트 ·탱고	
4	아프리카 지역의 민족음악	·민속춤 음악	·기아문제 ·인권 ·환경문제	
5	남미지역의 민족음악	·춤곡 삼바 ·하바네라	·아르헨티나 문제 ·경제문제 ·브라질, 멕시코	

라. 본시 지도 계획(1차시-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음악과 춤)

(1) 본시의 목표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민족음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민속춤의 발생과정과 민족음악과의 관계를 안다.
- *우리 보다 생활수준이 낮은 국가라 할지라도 훌륭한 음악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욕구와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한다.
- *민족음악과 민속 춤을 통해서 국제이해교육을 하도록 한다.

(2) 본시 지도안 -A형(종족음악을 중심으로)

단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종족음악	차시	1	일시	2005년 4월 14 일	지도장소	음악실
준비물	Bim-projector, computer, CD-rom, OHP, TP자료						
단계	지도내용	교수-학습내용				시간/자료	
		교사		학생			
도입	·전시에 예고한 조별 조사한 내용 발표	·각 조별로 조사한 국가별 종족음악, 춤, 지리적, 역사적 배경, 설화등을 발표시킨다.		·6조가 조사한 종족음악, 춤, 지리적 배경, 설화, 국제문제를 발표 방향 제시		5분/CD	
전개	·각조별 조사내용을 5분씩 발표	·음악과 춤은 밀접하게 관계되어있으며 역사적 배경과도 관련되어있음을 설명 ·우리 나라 전통음악이나 클래식과 다른 점을 이야기 ·각 나라마다 우수한 음악과 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하고 우리와 동일한 욕구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		* 종족음악 및 춤 - 인도음악 - 중국음악 - 일본음악 - 호주 * 국제문제(국제이해교육시) - 이라크 전쟁과 대량살상무기 - 환경문제 - 이스라엘-팔레스타인문제 - 인도-파키스탄 분쟁 - 일본의 정신대문제 * 티베트의 인권문제 * 설화 * 각 종족음악의 특징과 음계 * 우리 나라 전통음악과 서양의 클래식 음악과 다른 점을 이야기		40분/ 빈프로젝트 컴퓨터 OHP PPT 홈페이지	
정리 평가	·내용정리	·음악과 춤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 각 조별로 내용을 정리 * 정리한 내용을 교사의 홈페이지에 탑재 * 형성평가 * 다음 차시 예고		5분/	

2. 학습지도안

단원	세계의 축제	차시	1	일시	2005년 4월 일	지도장소	음악실
준비물	BIN-PROJECT. computer, CD-rom. OHP, TP자료						
단계	지도내용	교수-학습내용				시간/자료	
		교사		학생			
도입	·전시예 예고한 조별 조사내용 발표	·각 조별로 조사한 국가별 민족음악, 춤, 축제에 대한 조사.		* 담당 국가의 축제에 대해 조사한 발표 자료 * 담당 국가의 민족음악과 춤에 조사한 발표자료		5분/CD	
전개	·각조별 조사내용을 5분씩 발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시하면서 전체적으로 토론하게 한다. 축제는 음악과 춤과 밀접하게 관계되어있으며 역사적배경과도 관련되어있음을 설명 ·우리나라 전통음악이나 클래식과 다른점 이야기 ·각 나라마다 우수한 축제속에 음악과 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하고 우리와 동일한 욕구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		조별로 세계 여러 나라의 축제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다. - 세계 여러 나라의 축제들 중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세계 여러 나라의 축제들에 있어서 공통점은 없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 세계 여러 나라들은 왜 그러한 축제들을 하게 되었을까? 각각의 축제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토론 내용을 정리하면서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킨다. * 민족음악 및 춤 - 인도음악 - 중국음악 - 인도네시아 음악 - 스리랑카 음악 - 일본음악 - 호주 * 국제문제(국제이해교육시) - 아프칸 사태와 여성인권 문제 - 환경문제 - 이스라엘-팔레스타인문제 - 인도-파키스탄 분쟁 - 일본의 정신대문제 * 지리적,역사적 배경 * 설화 * 각 민족음악의 특징과 음계 * 우리나라 전통음악과 서양의 클래식 음악과 다른점을 이야기		40분/ 빈프로젝트 컴퓨터 OHP PPT 홈페이지 (http://net-in.co.kr/joe8360/culture/index.html)	
정리평가	·내용정리	·음악과 춤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 각 조별로 내용을 정리 * 정리한 내용을 교사의 홈페이지에 탑재 * 형성평가 * 다음 차시 예고		5분/	

V. 결 어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 제고에 타문화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시점에서 7차교육과정의 음악과 교육과정 중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익히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재량활동 중 국제이해교육을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욕구와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교육을 하는데 좋은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본다

1. 종족음악과 민속춤을 배움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며 같은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운다.
2. 또한 능동적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에 있어서 창의적 재량활동 중 국제이해교육모듬학습에서 좋은 참고 자료로 사용되어지리라고 본다.
3. 종족음악에 대한 이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감상과 음악학습활동에 있어서도 폭넓은 음악미적 체험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국가 경쟁력제고와 국제문제에 접근하는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6. 종족음악 지도에 자료의 빈곤으로 고민하는 음악교과 담당선생님들과 창의적 재량활동 수업자료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곽병선 외, 교육과정(2000). 연구개발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한 국교육개발원, 1996.
- 교육부(1997). 음악과 교육과정.
-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음악).
- 교육부(1997. 12. 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 : 총론, 재량 활동, 서울 : 서울특별시인쇄공 업협동조합.
- 교육부(1997. 12. 30). 중학교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 교육과정-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 외국어,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16.
- 교육부(1998).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요(교육과정 자료 5).
- 교육부(1999). 특별활동, 재량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과정 자료 26).
- 교육부(2000).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재량활동 실천사례 개발(교육정책연구 2000-일 24).
- 교육부(2001).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1. 5. 17).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지침 및 관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16호).
- 게네스 타이 편저(김현덕 역)(1997). 학교에서 세계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도서출판 오름.
- 메리엄. A. P(이기우 역)(2001). 민족음악학. 도서출판 신아.
- 박도순(1988).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 학습 과정 및 평가의 개선 방향 (제3차 교육개혁 대토론회 자료집).
- 노동은. 민족음악언어의 이론과 실천. 예술과 비평 1988년 겨울호
- 노동은(1989). 한국 민족음악 현단계 세광음악출판사.
- 박미경(2000). 탈 서양 중심의 음악학, 동아시아.

- 박순경 외2(1998). 초등학교 재량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KICE 연구보고 RRC 98-4).
- 부여고등학교(2000).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99). 아시아의 인권교육, 사람생각.
-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1999). 국제이해교육 방법론, 사람생각.
-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2000). 유엔 바로 알기, 오름.
- 이삼열(2001). 더불어 사는 세상 이야기,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이강숙(1990). 민족음악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 이강숙(1985). 음악의 이해, 민음사.
- 이건용(1998). 음악윤리학. 민음사.
- 이건용(1998). 민족음악론의 대두와 전망. 예술과 비평 1988년 겨울호.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98). 유네스코 협동학교 사업,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 영동고등학교(1998).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한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유태희(1981). 음악교육학 개론, 서울, 학문사.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편(1999). 국제이해교육 영상자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진희숙(1989). 민족음악, 전통음악 부활에서 비롯되어야, 음악동아, 1989. 2.
- 美田節子 譯(1982). 音樂教育と 人間形成, 音樂之友社.
- 한국교원대학부속고등학교(2002). 국제이해교육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 한국교원대학교,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연구.
- 후지이 도모아끼(심우성역)(1990). 아시아 민족음악 순례. 동문선.

유쾌하게 가꾸어가는 평화 수업

배 성 호*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 교사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마주서게 된다. 새로운 아이들과의 만남은 한 해 또는 그 이상 꾸준히 학교와 학교 밖에서도 이어진다. 아이들과 더불어 신나게 공부하고 놀며 생활하는 그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급운영은 펼쳐진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교실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만남들 역시 계속 이루어진다.

올해 우리 반은 평화교육에 바탕을 두고 생활을 열어 가고 있다. 평화라는 말은 익숙해도 막상 그 뜻을 이야기하라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평화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가족들의 화목, 우정, 싸우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등 가볍게 평화를 연상해 낸다. 아이들의 생각처럼 의외로 평화는 우리 곁에 쉽게 다가와 있는 건지도 모른다. 평화는 자기 자신의 삶에서부터 가족, 이웃, 그리고 전 세계를 통해 곳곳에서 다양하게 느끼고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남과 친구로 가꾸어 가는 평화교육

평화교육을 모색하게 된 계기는 재일동포 친구들과의 ‘만남’이다. 우연히 작년 겨울, 아이들 5명과 더불어 재일동포 친구들로부터 초청을 받아 일본에 가게 됐다. 그 뜻하지 않은 고마운 만남 덕분에 나는 이제껏 나와 상관없었던 재일동포들과 ‘친구’가 되었다. 아이들의 만남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나는 아이들에게 세상에는 유쾌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참 많다는 것을 즐겁게 느끼도록 하고 싶다. 또 그 친구들을 통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키워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평화교육의 시작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일동포 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청산되지 못한 무거운 역사적 주제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눈높이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 아이들의 신선한 생각과 실천으로 거창한 역사적 화해와 평화를 가볍게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위해 우선 나는 아이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수업 방법을 찾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다. 아이들이 즐겁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방송과 인터넷 등의 미디어 교육,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 교실로 초대해서 아이들과의 만남을 꾀할 수 있는 자원초빙인사 학습을 구상했다. 이 점은 일본역사교육자 협의회 미야하라 다케오(宮原 武夫) 선생님께서도 한일 역사교사 심포지엄에서 지적하신 점이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암기 중심의 객관적 인식보다는 공감적 인식이 나온 것이 아니냐?’²⁰⁾는 문제의식은 수업을 기획하며 행하는 과정에서 초등교사인 나에게 중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일본과 불행했던 역사를 나누기 위해서 MBC 방송 프로그램인 <느낌표 !>의 ‘아시아, 아시아’ 특집을 수업에 활용하기도 했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 나눔의 집에 직접 문의를 해서 현장 체험 학습도 계획 중이다. 그 과정에서 나눔의 집에서 일하고 계신 분께서 직접 교실로 방문해 ‘평화’를 찾아가는 수업을 함께 만들고, 앞으로도 함께 수업을 열어 가기로 했다.

더 넓은 세상과의 만남으로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 특별한 만남도 마련했다. 대학원에서 평화학 강좌를 공부하다 만난, 버마와 베트남 분들을 교실로 초대한 것이다. 그분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교실에서 아이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베트남과 버마라는 생소한 나라에서 오신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아이들은 그 나라의 상황을 알고 평화에 대한 싱싱한 자극을 담뱃 받았다. 기꺼이 초대에 응한 버마의 마웅저 씨는 아이들과의 수업 후 다음과 같은 소감을 남겨 주셨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은 한국의 친구들이 세계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부와 언어와 생각이, 그리고 종교가 다른 것은 작은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차별인 세상이 하루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마칠 무렵 어린이 친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평화를 좋아하세요? 32명 모든 친구들이 입을 모아 한마음으로 평화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 어린 새싹들을 보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긴 호흡으로 평화교육을 열어 가며

평화교육을 통해 교사인 내가 무엇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배워 나간다는 평범한 이치를 수업 시간에 느껴 보았으면 좋겠다. 이로 인해 나와 함께하는 아이들이 재일동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장애인, 이주 노동자 그리고 세상의 이름 모르는 무수히 많은 벗들과 친구가 되어 꿈을 키워 가며, 평화를 나누길 바라기 때문이다.

20) 일한 역사 교육자 교류회 제3회 심포지엄(2004. 3. 27)

수업 코멘트(comment) - 이은홍 교사의 ‘임진왜란을 겪은 사야가의 삶’에 대해서

평화 수업 프로젝트

1. 수업계획을 세우며

재일동포(이하 ‘재일’)아이들과 더불어 한국에 있는 또래 아이들의 만남을 통해 평화를 가꾸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몇 차례의 형식적 만남과 교류로 끝나고 마는 일회성 교류 행사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만남을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가꾸어 가는 방안을 단기간의 수업이 아닌 최소한 한 학기 분량의 기간을 통해 마련하고자 수업을 구상해본다.

수업 소재로 선정한 재일의 실존적 삶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행한 일제의 식민지 역사에서 강제 징집 당한 조선인들이 오늘날 재일 사회의 주된 성원들이기 때문이다. 재일들은 현재 일본 내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소외된 삶을 일구어 온 사회적 약자이다. 더군다나 조국이라 일컬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재일들은 ‘이방인 아닌 이방인 대접’을 받으며 살아간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한·일 양국(너르게 생각해보면 동아시아 아니 전 지구적 역사)의 비극과 다름을 폭 넓게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조망한다. 그 어둠을 밝히는 새로운 희망을 평화롭게 모색하는 것이 본 수업의 지향점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재일동포 그리고 일본 아이들의 생각과 실천을 슬기롭게 담아나가하고자 한다.

2. 수업계획 시 유의점

- 이 수업은 1년 전체를 운용하면서 적용하기에 장기적 계획²¹⁾ 속에서 구상한다.
- 수업이 지향하는 바는 평화를 너르게 펼 쳐 갈 수 있도록 한다.
- 수업 자체에 대해 교사가 명확한 관점을 지니지 못할 경우, 자칫 국수적 민족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기에 사전조사와 각계각층의 자문을 구하며 수업을 만들어 간다.²²⁾
- 수업의 주체는 아이들이라는 점을 인식한다.²³⁾
-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수업 소재를 팀티칭²⁴⁾으로 개발 운영한다.

3. 프로젝트의 실제

- 선배들이 알려주는 ‘재일’ 이야기
- 재일 어린이들을 이해하는 동화책²⁵⁾ “바이바이”, “꽃신”을 활용한 통합적 교육

21) 소재는 재일동포 아이들과의 만남이다. 하지만 이 소재를 바탕으로 인권, 평화, 국제이해를 여러 교과에서 통합적으로 녹여내고, 학급 운영 전반에 걸쳐 적용하고자 한다.

22) 재일동포와 관련한 책들을 정리해서 읽고 있다. 더불어 평화교육 전문가와 나눔의 집에서 활동하고 계신 NGO 분들과도 e-mail 이나 직접 만남을 통해 자문을 받으며 관점을 수립해 나가하고자 한다.

23) 수업 방향에 대한 흐름은 크게 열어두는 것을 교사의 몫으로 하고, 장기적 수업의 흐름과 아이들 스스로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계발을 위해 최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24) 세계의 상호의존성을 알리는 학습은 특정교과에서 실시하기보다는 전(全)교과에 걸쳐 적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초등학교의 학급 담임제에 근간을 둔다. 다만 개별 교사가 모자란 부분은 동료교사와 팀티칭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참여하고 있는 교사연구모임에서 수업 계획 및 운영 사항 전반에 걸쳐 의견을 교환하는 방안이 있다.

25) ‘바이바이’와 ‘꽃신’을 쓴 이경자 선생님은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 동화 작가이다.

- 자원인사 초빙 학습 - 평화운동가 초빙
-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 노동자 살펴보기
- 현장 방문 - 나눔의 집, 샬롬의 집 등

4. 국제이해교육으로 재량활동과 통합적 학급 운영 계획

첫째, 세상과 마주서는 창의 문제로 언론의 보도태도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비평)교육을 재량활동으로 이끌어보고자 한다.

둘째, 재일코리언(한국·조선인)의 문제를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 보고자 한다.

위의 두 가지 방향 구성은 단순히 재량활동이라는 특정 교과 시간만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초등학교 교육의 장점인 통합적 교육활동에 바탕을 둔 수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풀어가고자 한다. 아침 자습, (국어, 사회, 미술, 음악, 컴퓨터 등의) 교과 지도, 그리고 숙제²⁶⁾ 및 체험활동 등을 유기적으로 구성하려 한다.

재량활동의 주제는 미디어교육과 재일코리언 문제를 다룬다. 이는 언뜻 보아서는 두 가지로 구분 지어진 것 같지만 실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는 주제이다. 세상을 보는 일그러진 창의 문제로 미디어비평을 다루듯 사회에서 소외된 소수자의 관점에서 재일코리언 문제와 미디어비평 교육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학생 스스로 주체적인 사고력을 지니며 세상과 나의 관계를 따뜻한 가슴으로 만나는 것을 설정했다. 이는 단순히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 본인에게도 새로운 배움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²⁷⁾

5. 활동의 유의점

아직 우리의 교육과정과 사회 여건은 학생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마음껏 펼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수업을 이끌어 갈 교사인 나 역시 그 큰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덧붙여 학생들의 눈높이와 얼마나 쉽게 다가서느냐는 중요한 문제도 있다.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아이들과 호흡이 맞지 않는다면 허사이기 때문이다.

26) 이는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를 잇는 하나의 소통 통로로써 숙제를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호철 선생님의 ‘재미있는 숙제, 신나는 아이들’을 우리 반 실정에 맞춰 재구성하고자 한다.

27) 이는 기존의 교사-학생과의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아이들과 함께 한 활동의 실제

- 2004년 3월 8일 : 세계 여성의 날 신문 만들기(평화신문 1호)
3월 25일 : 재일동포 뜻 조사하기(가족 인터뷰)
4월 3일 : 선유도 생태공원 방문 - 현장 체험 학습('물' 박물관 견학)
4월 6일 : 환경의 날 신문 만들기(평화신문 3호)
4월 8일 :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 및 평화 국기 그리기
4월 16일 : 영화 <로빙화> 감상 및 소감 나누기
4월 20일 : MBC 방송 프로그램 <느낌표 !>의 '아시아, 아시아' 시청
4월 21일 : 나눔의 집 조사 학습 - 일본군 위안부
4월 30일 : 버마, 베트남 선생님 초청 수업
5월 6일 : 평화신문 만들기(북한 용천, 이라크 평화)
5월 12일 : 나눔의 집 변상철 선생님 및 버마·베트남 선생님 2차 초청 수업
5월 25일 : '바이바이', '꽃신' 동화책 읽기
6월 3일 : 영등포 소방서 소방대 초청 수업
6월 17일 : 재일동포 친구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 변화 나누기

◆ 재일동포 친구들을 처음 알았을 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2004. 6. 17]

아이들의 생각 변화를 본 프로젝트 수업의 긴 흐름에 비추어 가기 위해 1학기가 서서히 끝나 가는 6월 중순에 조사를 했다. 이 때 아이들과 교사인 나는 어떤 변화가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나누었다. 사실 이 점은 본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다. 3월에서 6월까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해 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수업 계획을 아이들의 입장에서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에 재일동포란 단어조차도 몰랐다. 예전에는 재일동포의 '재'자가 '세'인지 '하' 인지도 몰랐던 내가 재일동포의 뜻까지 알게 되었다. 선생님께서 재일동포란 말을 쓰셨을 때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줄 알았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고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는 알게 되었다. 학기 초에는 재일동포 친구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보였고 관심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께서 재일동포 친구들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인지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관심도 생기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재일동포 친구들을 나쁘게 생각했었다. 왜냐하면 우리 조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버려서이다. 또, 친구들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 말만 알고 우리나라 말은 몰라 줘서 밉고 얕미웠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우리 조국의 말도 알아주고 우리나라도 생각해 줘서 너무나도 고맙았다. **언젠가는 친구들을 만나면 아이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할 것이다. 착한 아이들을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말이다. ----- ♥

난 2주 동안 '꽃신'과 '바이바이'를 읽고 난 **많이 재일동포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이 책들을 지은 이경자 선생님 때문에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재일동포라는 뜻은 일본으로 이민 간 사람들도

있고, 일제시대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난 일본이 좋은지 아닌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아직도 일본에 대한 내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나는 솔직히 일본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다. 그리고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까 정말 재수 없다. 또, 일본군 위안부도 잊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처음에 일본 사람들을 다 죽여야 할 만큼 나쁜 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르다. 왜냐하면 알고 보면 일본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착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죽이지는 말아야 되고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의 대가는 일본이 얼마나 잘못 한지를 알고 그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이 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변상철 선생님께서 와 주셔서 내가 일본에 대해 갖고 있던 오해를 풀어주셨다.

나는 처음엔 '일본 나쁜 놈들, 왜 우리나라 괴롭혀' 이런 것 등등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반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일본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재일동포는 학기 초에 처음 알게 되서 놀랐다. 우리나라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있는 게 황당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사람이 일제 시대에 일본으로 끌려가 재일동포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 재일동포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 [2004. 3. 27]

@ 오늘 선생님께서 재일동포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 숙제를 내주셨다. 비록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생활이 어려워 일본에서 사니까 일본인들에게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차별할 것이다. 왜냐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일동포 친구들이 무척 불쌍하고 안타깝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재일동포들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 또한 열심히 공부해 발전하는 걸 도와줄 것이다.

@ 재일동포는 일본에 끌려간 한국 사람이다. 나는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어머니께서는 우리가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신다. 아버지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많이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셨다. 나는 일본에 있는 재일 동포들이 우리나라로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

@ 재일동포 친구들은 불쌍하다. 일본에서 살아서 일본 말이나 할 줄 알고 우리나라 말은 할 줄 모를 것 같다.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나라말을 모르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다. 다른 나라에서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어쨌든 난 재일동포 친구들이 불쌍한지 부러운지 또렷하지가 않다. 앞으로 더 생각해 보아야겠다.

@ **솔직히 나는 일본이 싫다.** 아니 정말 싫다. 그런데 일본 말은 정말 웃기다. 우리 엄마, 아빠도 일본어 말을 하면 웃으신다. 또 우리나라 말을 할 때에는 정말 이상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재일동포 친구들을 위해 일본을 조금이라도 좋아해야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말을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 아이들과 생각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면서 기분이 좋았다.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다. 또, 저마다 생각이 다른 아이들의 발표를 보며 애초 수업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교사 중심의 획일화된 가치를 주입하지 말자던 수업계획이 조금은 지켜진 것은 아니었나를 되돌아 볼 수 있었다(물론, 극단적인 방법으로 치닫는 학생의 생각에 대해서는 그 학생의 생각을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 볼 기회를 마련해 주는 교사의 최소한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본다.).

아이들에게서 생긴 변화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새로운 친구들이 바다 건너 바로 곁에 있다는 걸 알았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제일동포 친구들에 대해 이해할 수조차 없었다. 아니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제일동포를 나라를 배신한 사람으로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그 친구들이 누구일까?’를 알아 가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잘못된 오해를 풀고 생각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다고 본다. 이 과정은 앞으로 2학기 수업에서는 제일동포와 함께 일본 친구들과 또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과정으로 확대할 수 있겠다. 이는 여태까지 관심 밖에 있었던 사회적 약자들인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열어 가는 수업과도 병행될 수 있다.

여전히 아이들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가적 테두리에서 생각을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이들이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어른들이야말로 국가적 범위에서 자국 중심으로 사고하는 편협함이 강하다.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에게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기에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에 익숙해 질 따름이다. #8에 제일 끝 문장을 말한 친구는 다시는 식민지배가 역사적으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가 힘이 세어졌다고 해서 일본을 식민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평범한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생각의 출발점이다.

아이들은 일본 사람과 일본 국가가 같지 않다는 것을 서서히 배워가고 있다. 일본 사람 모두를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편협한 생각을 바꿔가고 있다. 나눔의 집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야지마 쓰카사(矢嶋宰) 같은 양심적인 일본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고정관념을 떨쳐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새롭게 마주서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국가에 얽매이지 않고, 세계적으로 열어갈 희망을 각자의 가슴에 새겨 나갔으면 좋겠다. 평화로운 희망을 담고서!

◆ 비디오로 만난 제일동포 친구들 [2004. 4. 2]

제일동포 친구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작년에 일본에 방문해서 캠코더로 촬영한 비디오를 아이들과 함께 보았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막연하게 멀게만 생각했던 친구들이 별반 다르지 않은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작년에 함께 일본에 간 다섯 명의 친구들은 바로 아이들보다 1년 선배이기에 비디오를 시청하는데 더욱 많은 관심들을 가졌다.

※ 선생님께서 작년에 일본에 가서 찍어 오신 비디오를 보여주셨다. 나는 그 비디오를 보는 도중 이번에 우리 학교 전교 회장이 된 아리 언니를 보았다. 그리고 제일 동포친구들도 있었다. 그 재일동포 친구들은 아직 잘 한국말을 못했다. 그래서 너무 짜증나고 안타까웠다. 왜냐하면, 원래는 한국인인데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이다. 제일 동포 친구들 중에는 작년에 5학년이었던 언니들도 있었다. 역시 언니이어서 그런지 한국말은 잘 하였다. 그리고 아마도 유치원생들도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비디오를 보는 도중, 재일동포 친구들이 우리나라 악기를 가지고 열심히 공연을 해 주었다. 그래서 난 너무 좋았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전부터 연습을 해 왔다고 해도 하나도 안 틀릴 수 없는 것인데, 하나도 안 틀리고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 및 평화 국기 그리기 [2003. 4. 8]

재일동포에 국한된 관심을 좀 더 너르게 열어가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했다. 일단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라들을 알아보았다. 대개는 유럽의 강대국이나 미국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름 모르는 다른 나라들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했다. 아이들은 처음 듣는 나라 명칭에 호기심을 가졌다. 때 마침 교실을 꾸미는데 다양한 나라의 국기들로 꾸미는 것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 아이가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익숙하지 않았던 나라의 국기를 찾아보고 직접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또, 한 국가의 상징을 넘어서는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평화의 국기를 만드는 활동을 병행하면서 본 수업 프로젝트에서 지향하는 평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펼쳐보았다. 존재하는 세계의 국기 말고도 자신이 꿈꾸는 희망을 담아 만든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서 참 흐뭇했다. 나무와 하늘을 국기로 그린 친구의 유쾌한 상상력에 감동하면서...

※ 학교에서 국기를 만들었다. 1분단은 중남미 아메리카, 2분단은 아프리카, 3분단은 아시아로 선생님께서 정해 주셨다. 우리 분단(2분단)은 아시아로 국기를 조사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3분단이 아시아로 정해져서 무척 아쉬웠다. 집에서 아프리카 국기를 책 지도에서 조사해 온 후, 학교에서 3교시에 국기를 그렸다. 친구와 우리 분단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국기를 그릴 것인지 친구들에게 물어봤다. 우리 분단은 협동해서 아프리카 국기를 완성했다. 다 그리지는 못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국기를 그려서 무척 재미있고 즐거웠다. 우리 반 친구들이 교실 게시판에 붙였는데, 정식 국기와 가짜 국기가 붙어져 있었다. 우리 반이 직접 만든 것 치곤 여러 나라 국기와 비슷하게 그려서 난 감탄이 나왔다. 다음에도 또 국기 그리기를 했으면 좋겠다.

◆ MBC 방송 프로그램 ‘아시아, 아시아’ 시청 및 ‘나눔의 집’ 조사학습 [4. 20~21]

역사적 화해와 평화라는 주제를 초등학생들과 나누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방송프로그램인 ‘아시아, 아시아’ 예고를 보고 수업의 좋은 자료가 되겠다고 생각했다. 역사적 의미의 무거움과 교양 오락 프로그램이 주는 가벼움이 조화롭게 모색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전에 방송을 녹화해 두고 수업시간에 방송을 아이들과 함께 시청하고 소감을 나누었다.

방송에서는 중국에 계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우리나라로 모셔오는 과정을 담았다. 그 과정에서 중국에서 있었던 난징 대학살과 일본 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다. 우리 반 친구들은 제일동포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일본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생각을 바꾸려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 생각을 돌연 바꾸게 하는 계기도 되었다.

하지만 오히려 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역사적 화해는 단순히 과거의 일을 다 없었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삶을 가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이 저질렀던 일은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한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에 당한 과거를 일본에 똑같은 방식의 복수로 되돌리는 것 또한 옳지 않다. 이런 점들을 넓게 생각하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과 한국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 가는 과정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 오늘 학교에서 ‘아시아, 아시아’ 특집 “60년만의 귀향”이라는 것을 보았다. TV에서 나눔의 집이 나왔다. 나눔의 집에는 할머니들께서 있었다. 할머니들께서는 몸이 무척 안 좋아 보였다. 몸보다도 마음이 더 아프신 것 같았다. 이유는 옛날에 일본에게 당했던 것이 상처로 남아 있으셨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들께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셨다. 일본에게 당한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중국도 당하였다고 한다. 나눔의 집과 중국에 있는 역사박물관에서 피해 입은 사람의 수와 옛날에 당했던 기구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었다. 나는 무척 마음이 아팠다. 이번 아시아에서는 60년 동안 보지 못한 분을 만나기 위해 나눔의 집 선생님과 연예인께서는 그분을 쉽게 찾으셨다. 하지만 중국의 국적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없어서 위기라고 한다. 나는 그분께서 꼭 만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슴 아팠던 마음이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 학교에서 특집 『60년만의 귀향』을 보았다. 난 생전 알지도 못했던 일본군 ‘위안부’라고 불리는 할머니들을 보았다. 어렸을 때 잡혀가 수없이 고통을 받으며 살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이 참 불쌍하게 느껴진다.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시위를 버리는 데도 무관심한 일본인들 때문에 너무 슬프다. 할머니들께서는 가슴에 한을 품게 되셨는데 정작 그렇게 만든 일본인들은 매몰차게 거들어 보지도 않고 있다는 게 나는 참 슬프고 화가 난다. 만약 내가 나눔의 집, 일본에 가게 된다면 일본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싶다. 또 나눔의 집 옆에 있는 그때 당시 모습도 직접 보고 싶다. 너무 억울하게 생매장 당하고 고문당하고 할머니들께서 얼마나 힘들고 슬프셨을까? 어서 빨리 할머니들께서 명예회복을 하길 바라고 우리 고국인 한국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때 마침 나눔의 집에서 활동하시며 평화교육에 관심을 지니고 계신 변상철 선생님과 야지마 쓰카사(矢嶋宰)선생님과 이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미 아이들과 나눔의 집에 방문해서 활동을 하셨던 최종순 선생님에게도 자문을 받으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모색 중에 있다.

◆ 버마, 베트남 선생님 초청 수업 [2004. 4. 30]

※ 나는 베트남 버마 선생님께 편지를 썼다. 사실 편지와 꽃을 접어서 드리려고 했는데 편지를 꾸며서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편지만 드렸다. 베트남 선생님께서 베트남에 대해 알려 주셨다. 베트남은 많은 전쟁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극복했을까? 참 궁금하다. 베트남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베트남 전통 의상이 있었는데 정말 예뻐다. 우리나라 한복보다는 아니지만 버마 선생님께서는 버마에 대한 안내 종이를 나누어 주셨다. 버마 말도 배우고 선생님께서 노래를 불러 주셨는데 재밌고 웃겼다. 베트남, 버마의 역사도 배우고 정말 보람찬 하루였다.

◆ ‘바이바이’, ‘꽃신’ 동화책 읽기 [2004. 5. 25]

같은 또래의 제일 동포 친구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이경자 선생님의 동화책들을 추천 받았다. 삶이 배어있는 책읽기를 통해 아이들이 제일동포 친구들과 다른 각도로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었으면 한다. 학생들이 독서를 위한 독서인 현란한 독서 기법에서 벗어나서 독서와 삶이 일치하는 교육을 열어 가는 것이야말로 책을 바르게 읽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독후감이 강요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책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행복한 책읽기를 긴 시간을 두고 마련하였다.

나와 우리를 찾아가는 두 갈래 길²⁸⁾

제일교포 작가 이경자의 장편동화 ‘바이바이’와 ‘꽃신’이 우리말로 옮겨져 출간되었다. 두 작품 다 열 살을 조금 넘긴 제일교포 여자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 정도의 나이라면 ‘나는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질문은 두 갈래로 진행된다. 자기 안으로, 그리고 자기 밖으로. 결국 확인은 자기 내부와 외부 세계의 관계 속에서 가능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물음들이 하나로 묶여갈 무렵, 아이는 성큼 마음의 키가 자란다. 이렇게 보면 위의 작품들은 전형적인 성장소설의 틀을 가진 동화이다. 그러나 안과 밖으로 향하는 물음들을 묶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이가 있는 곳이 이 땅이 아니라, 일본이기 때문이다. 일본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조선인으로 존중되는 것도 아닌 불분명한 경계에서 자신을 확인하는 것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쓰게 된 개인적인 동기를 머리말에서 밝히는데, 주제의식이 대단히 또렷하고 분명하다. ‘바이바이’에서는 우울하고 답답했던 어린시절을 떠올리면서 지금도 많은 교포 어린이들이 ‘왜?’라는 물음을 안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그리고 ‘꽃신’에서는 어린이들이 이름과 핏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정당화되는 현실과 당당하게 맞서면서 ‘내일’을 열어가기를 당부한다. 그의 작품들에는 작가가 오래도록 품어왔던 상처와 연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픈 소망이 함께 곁들여있다.

계속 펼쳐 갈 평화교육 프로젝트

제일동포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 눈뜨는 경험을 하듯, 일본 친구들과의 만남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지니고 있지 못한 유연한 생각과

28) ‘바이바이’, ‘꽃신’ 서평, 오석균, 어린이창비 제4호(2004)

무한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반 친구들은 동화책 ‘바이바이’와 ‘꽃신’을 읽고 그 저자와 편지를 주고받고, 또 그 작품으로 연극을 만들어 볼 예정이다. 그리고 ‘나눔의 집’에도 방문하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도 함께 하는 시간을 맞을 것이다. 평화를 생활에서 실천하며 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친구가 되며 아이들이 꿈을 가득 안고 자라나길 바라며 계속되어야 할 평화 여정의 한 꼭지를 정리해둔다. 이제 다시 옷깃을 여미고 새로운 평화 여행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 프로젝트 수업을 풍성하게 열어가기 위한 토론²⁹⁾

1)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 “아이들은 또 다른 세상을 알았으면 좋겠다. 같은 시대 다른 공간의 또 다른 삶의 의미를, 재일조선인,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살아 온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사회와 상황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 자기 스스로 꿈꾸고 그 꿈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재일조선인과 재중조선인은 삶의 처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도 다르다. 지난 과거의 피해와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역사적 갈등의 골이 패여 남아 있는 한 동포에 적 연대감이 있어야 한다.
- 체제대립으로 인하여 국가주의, 민족주의, 민족성, 애국심, 동포애가 교육과 삶에 있어서 왜곡되고 굴절되어 있다. 전후 특히 지금의 청소년들은 민족, 동포 이전에 인간적으로 연민으로 느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 그러나 초등 5학년의 수업활동에서는 한꺼번에 재일조선인 문제에 대해서 다 아는 것보단 미완성의 과제로 남겨두는 것도 좋다. 스스로 깨닫고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평생의 학습이다. 학생 개개인의 성향과 수준이 다르듯이 지나치게 목표를 명료화하거나 기술하지는 말자.
-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같은 역사를 경험했다하더라도 지금 동시대에 다른 상황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세상을 꿈꾸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느끼게 하면 된다.
- 이렇게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삶을 둘러보게 할 때, 아이들이 꿈꾸는 가치도 훌륭한 것만(체일주의, 출세, 부모님들이 대개 이맘때쯤 욕심을 드러내죠)이 아니라 작은 것을 돌보고 나누고 그 아픔을 치유하며 사는 것도 아름다운 것임을 느낄 수 있으면 다행이다.

2)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다양한 만남을 통해 수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많은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Peace Boat의 경험자들의 평화교육 체험은 바로 낯선 관계에서 평화의 가치와 방법, 자세를 몸으로 배운다는 것이다.
- 처음, 중간, 끝날 때 무엇이 궁금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다.

29) 평화교육연구회에서 본 수업 프로젝트를 두고 가진 토론내용

- 이 수업을 통해서 ‘평화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인식이 새로워졌다.’는 식의 교육자 위주의 목표 설정과 평가는 지양(止揚)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의식변화 역점을 두 어서는 안 된다. 나중에 토해내고 그래서 어찌겠다는 거냐는 역작용도 있을 수 있다. 나 중에 제 눈으로 다시 보고, 달리 생각해보면서 깨우칠 수가 있다.
- 하나의 돌출적인 관심과 인식도 인정해줘야 한다.